

杏源里 學術調查

1985.8.16 ~ 19

社會背景 / 141

方言 /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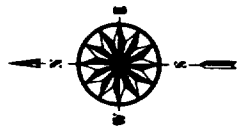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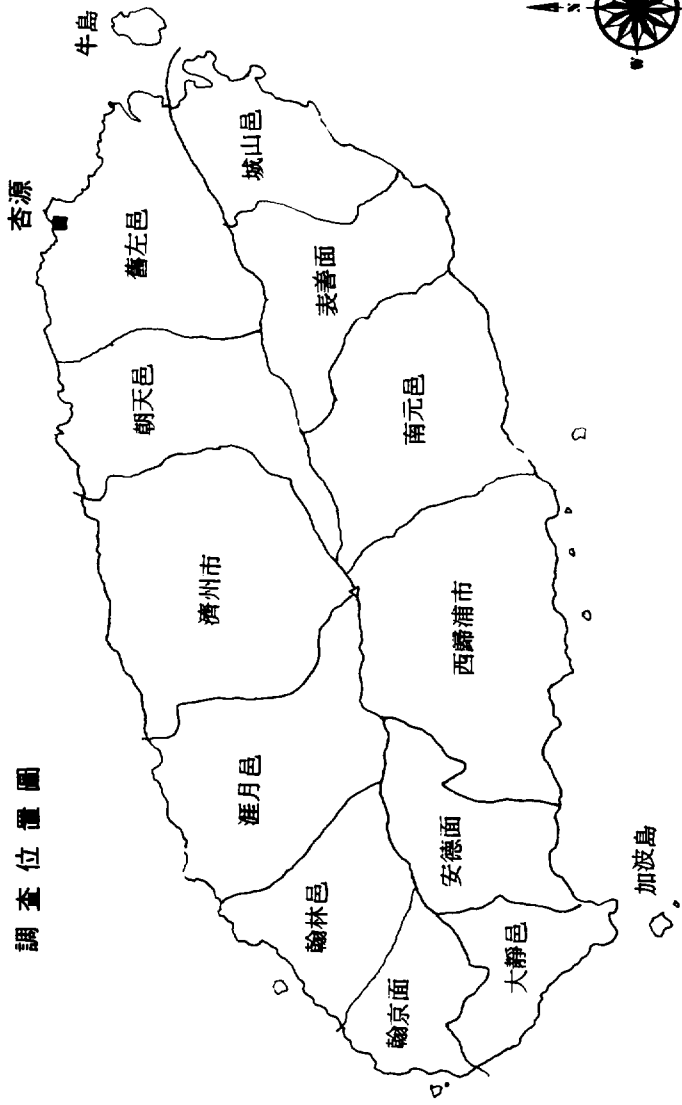
民謠 / 163

說話 / 181

信仰 / 206



調查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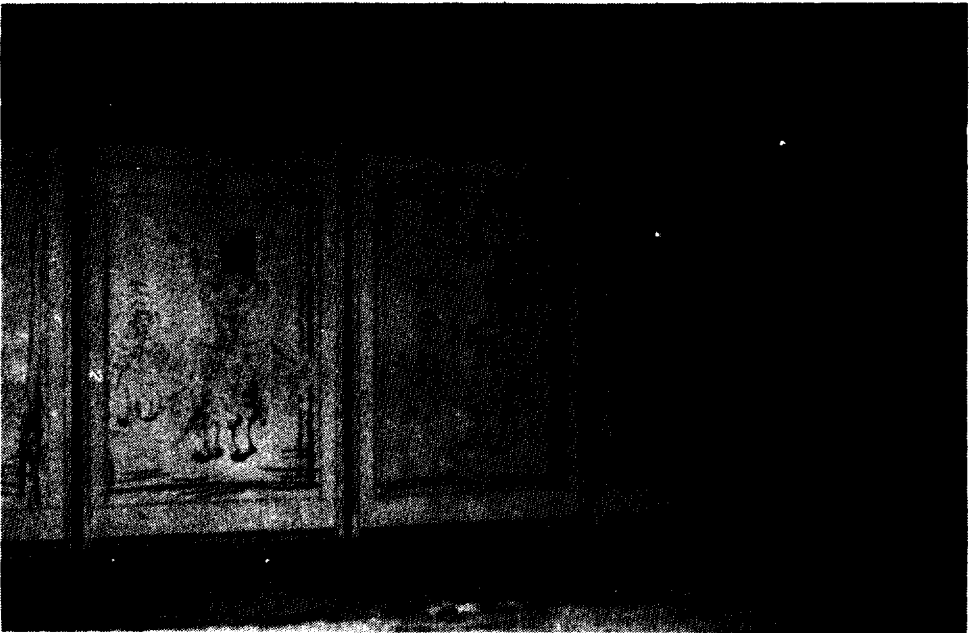
개 맛



지 새 물



윗 당



윗당내부 무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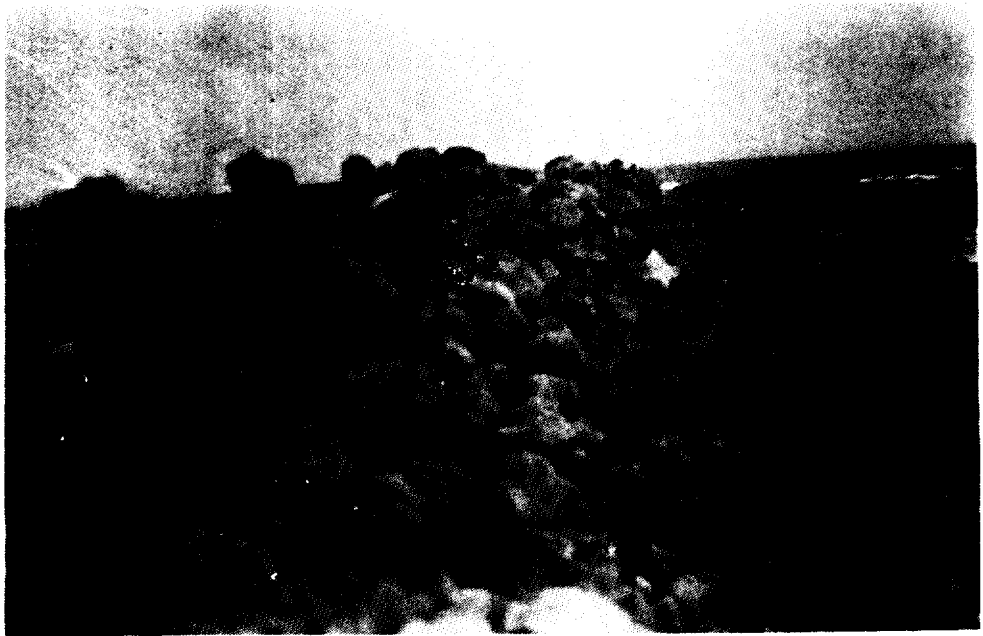
아 랫 당



아랫당 내부



더 뱅 이 물



환 해 장 성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金 永 和
班 員 李 仁 九(3)
金 宰 範(2)

目 次

- | | |
|------------|----------|
| I. 地理的 環境 | Ⅲ. 人文概況 |
| II. 歷史的 背景 | IV. 產業構造 |

I. 地理的 環境

濟州市에서 東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는 杏源里는 일주도로변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海岸部落으로, 行政區域上 北濟州郡 舊左邑에 속한다.

총면적 1019.3ha인 이 마을은 1979년 행정구역 재편성에 의해 5個洞에서 6個洞으로 나뉘었으며 해안선이 길고 또한 이웃마을인 漢東里와 月汀里에 비해 바다가 넓다.

인접부락으로는 2.5km 東쪽에 漢東里와 1.2km 西쪽에 月汀里가 있다.

마을 뒷편 南西쪽으로 연대봉과 둔지오름이 한라산을 뒤로 하고 있으며 화산 폭발 시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분화구 모양의 돌산을 이룬 <높은술>·<뒷당술>·<도롱곳술>·<생언이술>·<튼술>들 중에는 그 깊이가 2m 이상인 술(수월)도 있어 잡목이 무성하여 특이한 지형을 이룬다.

해안과 접해 있는 까닭으로 <밖거믄여>·<고래머리여>·<너븐여> 등 10여 가지나 되는 여가 있으며 또한 <도금물>·<더벙이물>·<굵벙이물> 등의 10개소가 넘는 물이 現存하나 食水로 사용하는 <물랭이혹>·<지새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雨期에나 물이 고인다.



물랭이흑

土壤은 대부분 沙壤質로 되어 있어 마늘과 같은 특용작물이 주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해양자원이 풍부해 소라·전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천초를 꺾적에는 300여 명의 海女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나갈 정도로 해초가 풍부하다.

II. 歷史的 背景

村老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기 1400년경 金海金氏 회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620년경 <금뱅이물>에 정착하여 야산을 개간하고 수렵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전 南平文氏에 이어 全州李氏 등이 1300番地境인 <세동빌레> 地境에 이주 정착하면서부터 農業·漁業을 중심으로 部落을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의 漢東과 杏源의 경계를 이루는 <더뱅이물>에서 漢東人 김천충(범천충)이 혼자 살다 떠났는데 그 후손들이 이 부락을 형성하였다고도 전해지는데 확실치 않다.

杏源里는 인접마을에 비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여 예로부터 <어등개>(魚登浦)라 불리워졌었다고 하며 지금도 村老들 사이에는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

杏源里라 한 것은 村老에 의하면 <武州里>(月汀)에서, <三陽>으로부터 모셔온 漢學者인 元峯先生이 <魚登浦>를 지나가다 牧童에게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목동이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르켰다고 하며 元峯先生이 또한 이 마을을 '杏花村'이라 부르면서부터 전하여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이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한다.

이렇게 口傳되어 내려오다 서기 1887년 行政區域 擴張으로 杏源里로 정식 改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本里는 地域的 與件으로 해서 人屍가 자주 海岸으로 떠밀려 왔었다고 하며 그래서 隣接部落인 漢東里와 軋轢이 잦았으며 지금의 海岸境界가 月汀里 보다 漢東里 쪽으로 넓은 까닭도 여기에 緣由한다고 한다.

本里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었다고 하는데 제주의 만리장성이라 불리워지는 폭 1m, 높이 1.5m 되는 현존하는 성터와 망동산이라는 봉화대가 그 당시를 말해준다. 그리고 日帝治下에서는 이 마을 海女들이 강제징집되어 수산물 채취를 강요당하고 수확물을 강압해 갔다고 하며 그 당시 해녀들의 휴식처인 불턱은 해녀들이 울분을 삭이던 곳이라 한다. 또한 남자들은 비행장 건설 등 강제징집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편 4·3事件으로 인해 피해가 컸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月汀里와 杏源里의 경계를 이루는 <깊은개>(探浦洞) 지역에는 15戶 정도가 주거하였다고 하며 4·3事件으로 인해 兩里에 흡수되어 지금껏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한다.

Ⅲ. 人文概況

杏源里는 6個洞 12個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家口는 317戶이고 人口는 1,445名이다.

〈表1〉 家口 및 人口

1985. 8. 현재, 杏源里 事務所 提供

家 口	317 戶	農 家	315
		非 農 家	2
人 口	1,445 名	男	635
		女	810

邑事務所 資料에 의하면 전체 317가구 가운데 46戶가 單獨家口로 나타나 대다수 농촌 자녀들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야기된 1인 1가구 형태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表2〉 性氏分布(세대주별)

金	姜	高	李	漢	康	朴	任	文	張	尹	安	林	梁	千	蔡	誅	朱	吳	禹	申	元	玄	鄭	崔	宋	白	天	嚴	黃	計	
314	176	174	164	125	99	90	41	35	33	31	13	9	8	8	7	5	5	5	4	4	4	4	3	3	2	1	1	1	1	1	1,413

〈表3〉 年齡別 人口現況

연령 구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計
男	26	65	102	106	78	39	27	34	26	31	43	14	9	27	627
女	39	68	116	112	73	36	20	30	29	51	69	25	21	97	786
計	65	133	218	218	151	75	47	64	55	82	112	39	30	124	1,413

1983년 조사자료, 舊左邑事務所 提供

〈表3〉으로 보아 55세 이상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주목되며, 특히 男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歷史的 事件과 現代의 移農現象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20代 이후의 젊은이들의 거주지는 里內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女性들이 장수하는 편이며 男子들 보다 女子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里內의 公共機關으로는 里事務所와 月汀里 所在 舊左中央國民學校가 있고 국민학교 병설 幼稚園이 있으며 그 외에 農協分所가 있다. 團體로는 부녀회, 청년회, 재일동포 친목회가 있어 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月汀里 100番地에 위치하고 있는 舊左中央國民學校는 1923년 사립중앙보통 학교로 설립된 이래 1950년 지금의 校名으로 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月汀里와 杏源里의 학생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데, 1982년 11학급이던 것이 1985년 현재는 8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表4〉 國民學生 現況

구 분	학 년	1	2	3	4	5	6	計
	男	8	11	7	11	20	23	
杏源	女	9	10	14	15	19	15	82
	計	17	21	21	26	39	38	163
月 汀		29	22	17	25	24	25	136

1985. 8. 현재. 舊左中央國民學校 提供

〈表4〉에서 杏源里 學生만을 볼 때 저학년으로 갈수록 學生數가 감소하고 있어 人口問題에 따른 家族計劃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좌중앙국민학교는 1924년 5월 10일에 開校하여 6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 수는 3,648名(男 2,481名, 女 1,167名)에 달한다. 총면적 12,071.4m²에 大地가 3,392.4m²이고 체육장이 8,679m²이다.

里民들의 학력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은 못되나 교육열은 대단히 높다.

〈表5〉는 구좌중앙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원아들의 보호자 교육정도이다.

〈表5〉 보호자 교육정도

구 분	학 력	고 등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무 학
父		15	12	8	.
母		2	8	29	.
計		17	20	37	.

1985. 8. 현재, 舊左中央國民學校 병설유치원 提供

부모들 중에 아버지는 교육정도가 높은 반면 어머니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두 早期教育에 대한 열의가 높음을 말해 준다.

里內的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이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변소개량, 하수구설치, 농로개설, 안길포장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文化施設로서는 전체 가구에 TV 90%, 냉장고 80%가 구비되어 있고, 신문

을 구독하는 가구가 50戶, 수동식 전화 3대가 설치되어 있어 本里가 현대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宗教現況을 보면 조계종 연봉사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행원교회가 있으며, 천주교회가 있으나 극히 소수의 신도가 있을 뿐이다.

巫俗信仰으로는 포켓단(浦祭壇), 윗당(南堂할오방), 아랫당(南堂할망) 등이 있는데 음력 정월 초하루에 제를 지내는 浦祭는 마을 里長이 관할하며 各洞에서 선출된 제관 7명이 마을의 무사와 안녕을 비는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IV. 産業構造

杏源里는 284萬 m^2 나 되는 漁場을 갖고 있으며 동력선 7척, 무동력선 1척 외에도 海女들이 있어 漁村契에 소속되어 있는 총가입자가 210名에 달한다.

漁場은 3區域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個洞씩 각 구역에서 작업을 한다. 水産物로는 소라·전복·미역 등이 主種인 데, 특히 어등개미역은 어데서나 1등급으로 쳐주는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연소 해녀 24세로부터 60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하나, 그 수에 있



감태공동작업

어서는 40대가 가장 많고 작업 또한 활발하다. 해녀들은 1일 평균 1~2만원, 한 달 평균 15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채취류 말고도 魚種으로서는 송어, 방어, 우럭 등이 主種이며 1일 漁船의 평균 소득액은 20~30만원이다.

陸地에서의 主所得源은 마늘이며 파종면적이 66萬m²나 되고 다음으로 보리, 유채, 참깨, 콩 등을 재배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表6〉 面積

計	밭(田)	林 野	기 타
1,019.3 ha	255	681.5	82.8

1985. 8. 현재. 杏源里事務所 提供

戶當 경지면적은 0.8ha이며 戶當 농가소득은 3,744천원(85년 현재)이다.

이와같이 本里는 農漁兼業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고루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할 때에도 水産物로서 생활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

〈表7〉 농기계 보급율

차 량	경 운 기	동 력 분 무 기	예 초 기
1	65	260	14

1985. 8. 현재. 杏源里事務所 提供

杏源里는 마을 목장이 1,157萬m²로 4월에서 11월까지를 放牧期間으로 하며 주로 소, 말이 대중을 이루는데 소가 375두이고 말은 68두이다.

대체적으로 住民들은 勤勉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느 부락과 마찬가지로이다.

方 言

指導教授	金 洪 植	姜 榮 峯
班 員	金 法 順(3)	李 明 順(3)
	金 愛 貞(3)	金 順 子(2)
	金 美 貞(2)	金 南 孝 丰(1)

目 次

- I. 물고기명(魚名)
- II. 풀이름
- III. 지명(地名)

○ 調査經緯 및 記述方法

이 보고는 1985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 동안 구좌읍 행원리에서 조사한 魚名·植物名·地名을 그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다.

행원리는 해안부락으로 어느 마을과 같이 반농반어의 형태를 지닌 부락으로, 물고기 이름과 병행하여 식물 특히 초목류의 어휘조사에 안성마춤이라 기대하고 조사에 임했다.

조사의 능률을 올리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 따른 어류도감 및 식물도감을 준비하는 한편,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국문학보 제4집~제7집 및 학술조사보고서 제5집~제8집 등을 참고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어명과 식물명 조사조 등 2개조로 편성하여 준비된 도감을

이용,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류도감은 그래도 물고기가 선명하게 나타나 쉽게 알아보고는 方名을 채록할 수 있었으나 식물도감인 경우는 제보자가 한결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게 그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었다.

어명인 경우는 뱃일에 종사했다거나 아니면 현재 배를 부리고 있는 어부를 제보자로 선정하고는 어류도감을 펼쳐 보이며 方名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리 준비한 녹음기에 녹음하는 한편, 도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는 필기하기도 하였다. 몇 사람의 제보자를 만나면서 틀린 부분이 정정되기도 하였으며 조사 종류가 불어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서 바다이름을 얻게 된 것은 별도의 소득이었다.

식물이름인 경우는 주로 부녀자를 택했다. 처음에는 식물도감을 보여주면서 방언명을 알려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농사 이야기, 또는 주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면서 제보자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한창 마늘 작업을 하고 있어, 어느 집에 갔을 때 한꺼번에 많은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일이다. 비교 보완이 되어 어느 정도 완벽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명에서는 땅이름 뿐만 아니라 바다이름, 여이름까지를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편의를 위해 방언형과 병행하여 표준어를 밝히려 했다. 어명인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었으나 식물명인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표준어를 밝혔다.

I. 물고기명 (魚名)

번호	표준어	방언
1	멸치	참멸치
2	전어	전어
3	수염상어	비깨
4	괭이상어	도랭이
5	악상어	모도리

번호	표준어	방언
6	복상어	비근드리, 비근더리, 비근다리
7	얼룩상어	개상에, 존다니
8	삿징이상어	죽상어
9	돌묵상어	막쟁이
10	전자리상어	수거리, 수구리
11	별상어	저울도리, 제울드리, 저울드리
12	까치상어	죽상어, 죽
13	귀상어	양지기, 귀오도리, 귀상어, 톱상어, 귀모도리
14	홍어	가오리, 개우리(개오리), 창개오리
15	흰가오리	떡가오리, 떡개오리
16	매가오리	제비가오리, 제비개오리
17	눈통멸	눈통이멸
18	정어리	징어리
19	셋줄멸	고드리
20	임어	독대기
21	밴댕이	뒤퍼리, 주박
22	황어	가조기
23	철갑동어	짱(짱)복쟁이
24	달고기	돈치(별명: 허풍시) 허풍쟁이
25	돛돔	돌돔
26	점줄우럭	지넘
27	꼬리치	맹치
28	능성어	구문쟁이
29	갈건이	임어
30	붕메기	맹치
31	자바리	다금바리
32	황쏘가리	바다맹치
33	가물치	줄락
34	게르치	가조기
35	동갈치	고질맹이, 주네부리
36	퐁치아제비	고질맹이

번호	표준어	방언
37	항알치	고질맹이
38	새날치	늘 치
39	날 치	늘 치
40	학공치	고질맹이, 주네부리
41	청가시고기	다 치
42	점매가리	벨 똥
43	도파눔	가시우럭(솔치우럭), 동치
44	까치돔	북바리(참바리), 각돔
45	황 돔	홍욱치(황돔), 생선돔
46	붉 돔	참 돔
47	감성돔	벨돔, 감은돔, 감생이, 감문돔
48	뱅에돔	구 릿
49	큰입우럭	눈통이우럭
50	작은입우럭	갓우럭
51	돌 돔	물 툫
52	아홉등가리	논쟁이(수심이 얇은 곳)
53	여덟등가리	논쟁이(수심이 깊은 곳)
54	달고기	돈 치
55	드렁허리	장 에
56	애꼬치	고질맹이
57	격 지	밤장우럭
58	자바리	북바리
59	세줄얼개비늘	술맹이
60	큰줄얼개비늘	술맹이
61	옥 돔	오토미
62	줄만새기	시 라
63	젯방어	부 리
64	꼬리돔	각재기
65	동갈통돔	술맹이
66	실볶돔	도 미
67	녹줄돔	도 미

번호	표준어	방언
68	황줄감정이	망치
69	범듬	알롱베기
70	자리돔	자리
71	망삼어	망치
72	놀래기	술메이, 어랭이
73	용치놀래기	술메이(♂), 어랭이(♀ 검은빛)
74	실용치	코생이, 어랭이
75	점다랭이	고드리
76	셋돔	돔
77	전쟁이	각재기
78	부시리	부리, 히라수
79	혹돔	웁이
80	붉은매기	매치
81	독가시치	다치
82	황경볼락	방쟁우럭, 곰팽이우럭
83	늘치볼락	검평우럭
84	불감팽	냉내기우럭
85	득지	물평
86	별넙치	도다리
87	풀넙치	십땃개
88	노랑가자미	도다리
89	칠서대	섯
90	꺾치	꺾주리(수심이 얇은 곳)
91	말꺾치	꺾주리(수심이 깊은 곳)
92	거북복	깡복쟁이
93	자지복	검복
94	까치복	심밤복
95	물가자미	
96	황메통이	미살치
97	쓸종개	멍치
98	무태장어	보들락

번호	표준어	방언
99	봉장어	아나고
100	참바리	붉바리
101	붉바리	붉바리

제보자

- | | |
|-----------------|-----------------|
| ① 이 일 평(남, 89세) | ⑤ 강 경 일(남, 35세) |
| ② 박 영 찬(남, 55세) | ⑥ 이 기 향(남, 39세) |
| ③ 한 복 만(남, 40세) | ⑦ 차 거 운(남, 35세) |
| ④ 강 세 신(남, 50세) | |

II. 풀이름

- | | | |
|--------------|------------------|-----------|
| 가. <—기> | 15. 개자리 | 30. 갓짱냥 |
| 1. 사시래기 | 16. 월 리 | 31. 볼랫냥 |
| 2. 해빅래기 | 17. 임 느리 | 32. 상동냥 |
| 3. 구렁태기 | 18. 새우리(정고지) | 33. 멀리냥 |
| 4. 눈뵈래기(익모초) | 19. 허공고사리 | 34. 탈 냥 |
| 5. 미넷기(미나리) | 20. 배염고사리(밭풀고사리) | 35. 젓피냥 |
| 6. 감부기 | 21. 자굴고사리 | 36. 세빗냥 |
| 7. 시래기 | 22. 총각고사리 | 37. 믈말냥 |
| 8. 숨베기 | 23. 백태우리 | 38. 개범불냥 |
| 9. 배채기 | 24. 청돌라리 | 39. 생이조적냥 |
| 10. 방돌래기 | 25. 잭가시리 | 40. 맹개냥 |
| 11. 풋개기 | 26. 모실부리(뿔리) | 41. 구렁빗냥 |
| 12. 두레기 | 27. 대우리 | 42. 독고리냥 |
| 나. <—리> | 다. <—냥> | 라. <—냥> |
| 13. 고사리 | 28. 풀감냥 | 43. 진 냥 |
| 14. 미국대우리 | 29. 밧꼬지냥 | 44. 북담냥 |

- 45. 닥 낱
- 46. 송악낱
- 47. 깻짱낱(낭)
- 48. 등박낱
- 49. 물쿠실낱
- 50. 풍 낱
- 51. 자구낱
- 52. 개고치낱
- 53. 칠 낱

마. <—풀>

- 54. 진 풀
- 55. 돌풀(돌풀)
- 56. 청산쿨풀
- 57. 장애대덕풀
- 58. 감남풀
- 59. 딸감남풀
- 60. 물 풀
- 61. 장덕풀
- 62. 고름풀(등대풀)
- 63. 던대풀
- 64. 장둑풀
- 65. 치장풀
- 66. 함박풀
- 67. 소낭풀
- 68. 외 풀
- 69. 향미풀
- 70. 콩 풀

바. <—꽃>

- 71. 운등꽃(운등꽃)
- 72. 할망(하르방꽃)
- 73. 임유리꽃

- 74. 맛물꽃
- 75. 배염꽃
- 76. 손바다꽃

사. <—기타>

- 77. 범지리가시
- 78. 귀까시
- 79. 마농쫑
- 80. 방 품
- 81. 난 초
- 82. 쇠비늘
- 83. 갠느스꽃(긋)
- 84. 저슨살이
- 85. 대 축
- 86. 고 치
- 87. 물 외
- 88. 춤 외
- 89. 눈생이
- 90. 제완지
- 91. 춤비늘
- 92. 룰 왓
- 93. 스앵이
- 94. 뭇 개
- 95. 섭시리
- 96. 콤대산니
- 97. 신(센부르)
- 98. 산 디
- 99. 모 시
- 100. 배빌레기줄
- 101. 드른마농
- 102. 복송개
- 103. 덕볼래
- 104. 보리탈

- 105. 개엄지탈
- 106. 룰꽃개
- 107. 딸외남줄
- 108. 메마줄
- 109. 본 지
- 110. 자굴(자굴)
- 111. 가메기바농
- 112. 신사라
- 113. 군 지
- 114. 수리대
- 115. 임모초
- 116. 뱀 술
- 117. 감비역
- 118. 아짐베기꽃
(아짐베기꽃)
- 119. 능갱이꽃
- 120. 둘 비
- 121. 덧뿌찌개
- 122. 뭇 술
- 123. 삼 마
- 124. 숨베기여름(너름)
- 125. 고 랫
- 126. 피
- 127. 소 새
- 128. 부 재
- 129. 어 움
- 130. 드림박

제보자

- ① 강 인 돈(18(여, 88세)
- ② 고 계 인(여, 48세)
- ③ 윤 기 엽(여, 72세)
- ④ 이 용 옥(여, 64세)
- ⑤ 장 군 열(여, 36세)
- ⑥ 현 옥 순(여, 54세)

Ⅲ. 지명(地名)

1. -밭(왓, 팻)型

- ① 지픈밭: 주위의 지대보다 낮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
- ② 다람쥐왓: 다람쥐가 살았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
- ③ 모기왓
- ④ 질왓: 땅이 기름진 밭. 眞田.
- ⑤ 거름팻
- ⑥ 남당팻: 南堂이 있어서 불려진 이름
- ⑦ 우영팻: 인가(人家)의 부근에 있는 밭.

2. -도型

‘도’라는 것은 입구(入口)를 나타내는 제주도 특유의 접미사이다.

- ① 고시머름도
- ② 물개거름도: 한동리와의 경계되는 곳
- ③ 먼모살도
- ④ 오저도
- ⑤ 남죽이도

3. 一술(수월)型

술 또는 수월은 덩불과 돌등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숲을 이른다.

- ① 막은술
- ② 툯술 : 나무가 따로 조금 심어져 있어 붙은 이름
- ③ 높은술
- ④ 생언이수월
- ⑤ 정등머들수월

4. 一물型

‘물’은 통, 못과 함께 인위적, 자연적인 샘물등을 말한다.

- ① 대물
- ② 도근물
- ③ 굼뱅이물 : ㉠ 굼벵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 김뱅이물이 와전된 이름, 행원시조인 김씨 할아버지가 샘을 만들어 그 물을 먹었다는데서 유래.
- ④ 사농물(사롱물)
- ⑤ 끄림물(끄렁물) : 물이 깨끗치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⑥ ㄹ는 곳물
- ⑦ ㄹ막물
- ⑧ 더뱅이물
- ⑨ 지샛물

5. 一못型

- ① 켜나못(켄나못) : 켜(켄) 남이 있는 못(남은 나무의 방언)
- ② 가문쇠죽은못 : 검은 소가 빠져 죽은 뒤로 붙여진 이름
- ③ 시시름못 : 사람은 먹지 않고 소만 먹기때문에 붙여지는 이름

- ④ 벌레못
- ⑤ 숨은이못

6. -빌레型

‘빌레’란 넘적 편편한 암반을 말한다.

- ① 검색빌레
- ② 식똥빌레 : 지대가 높아서 소가 올라가다가 힘이 들므로 똥을 누고야 올라갈 수 있으므로 유래된 이름.
- ③ 상관이빌레

7. -통型

- ① 알통
- ② 흑통(흑통) : 옛날엔 이곳의 흙을 파서 웅기를 구웠고 지금은 물이 고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
- ③ 범주리통 : 범윤이가 샘을 만들어 그 물을 먹은데서 유래됨
- ④ 속ㄴ생이통
- ⑤ 막개통 : ‘막개’라는 별명을 가진 김해김씨가 만든 통
- ⑥ 윤하르방통 : 윤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만든 통
- ⑦ 들래통
- ⑧ 움뺨통

8. -목型

- ① 금산목
- ② 쉬영목 : 사람들이 오다가다 잘 쉬는 장소에서 붙여짐
- ③ 한갯목
- ④ 녹무린목
- ⑤ 상대밭목

- ⑥ 한모살목
- ⑦ 거부목

9. -동산(산) ㅁ

- ① 벼락맞은동산 : 벼락이 떨어져 소가 죽었던 동산으로 행원목장안에 있는 지경이름
- ② 노래기동산 : 종종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동산
- ③ 뽕당동산 : 뽕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
- ④ 북망산
- ⑤ 평동산
- ⑥ 지드림동산 : 해녀들이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게 해달라고 빌거나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바닷가의 언덕

10. -머새 ㅁ

‘머새’란 수월과 비슷하며 비교적 돌이 많은 곳이다.

- ① 당머시(모새)
- ② 돌통머새 : 돌 무더기가 많이 있는 사이에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11. -머를(모를) ㅁ

- ① 정지머를
- ② 고시머를 : 고씨가 조상의 산을 쓴데서 유래됨

12. -당 ㅁ

‘당’은 제물을 차려놓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비는 곳이다.

- ① 옷당
- ② 알당

13. -이 쥬

- ① 생언이(송언이) : 솔남(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② 알뜰이 : 좌가장이라고도 하는데 좌씨가 목장을 만듦으로써 유래되었으며 마을에서 아래쪽에 있으므로 알뜰이라고 함.
- ③ 남죽이(남직이)

14. -디 쥬

- ① 알뱅디 : 알편편디가 와전되어 알뱅디로 불림 아래쪽에 위치한 편편한 곳 이라는데서 붙여진 이름
- ② 개맞디
- ③ 구시난뱅디
- ④ 것난디

15. -여 쥬

물에 잠긴 바위인데 밀물때는 보이지 않지만 썰물때는 보이는 수가 있음

- ① 박검은여
- ② 셋검은여
- ③ 진검은여
- ④ 고래머리여
- ⑤ 막새여
- ⑥ 만서여
- ⑦ 개우굴여
- ⑧ 등굽은여 : 사람이 등을 굽힌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 ⑨ 너븐여 : 넓적 편편한 모양때문에 붙여진 이름-알너븐여
- ⑩ 오저여 : 물새들이 많이 날아와 앉고 새끼를 치고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
- ⑪ 닥그른여(닥거린여) : 닳을 걸기 좋게 생겼으며 실지로도 닳을 걸기도 함

- ⑫ 큰여
- ⑬ 알노린여, 웃노린여 : 황색계통의 해초가 많이 있어서 붙은 이름
- ⑭ 돌탄여
- ⑮ 즈장여(즈진여) : 작은 바위 여럿이 모여 있어서 붙은 이름
- ⑯ 툯여 : 조금 떨어져 있는 여
- ⑰ 서근여(석은여)
- ⑱ 상자린여
- ⑲ 지방여
- ⑳ 옷담는여
- ㉑ 배릉여(배룩여)
- ㉒ 방앳여 : 연자방아의 몸체처럼 넓적하고 둥글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
- ㉓ 숨은여
- ㉔ 알생굴여, 웃생굴여
- ㉕ 너븐태왁여 : 태왁모양으로 생긴 큰여
- ㉖ 큰드ㄱ리여 : ㄱㄱ리 모양으로써 크게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

16. -덕 쉼

해녀들이 옷을 벗어 두기도 하고 물질하다가 쉬기도 하는 바위

- ① 동글락덕
- ② 큰드ㄱ리덕 : 큰드ㄱ리는 행원리의 바다이름이며 -덕과 -여에 둘다 붙여 말한다.
- ③ 툯터지덕
- ④ 더뱅이물덕

17 -코지 쉼

'코지'란 陸地에서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물위에 나타나 보이는 바위이다.

- ① 흰돌코지

- ② 민돌코지
- ③ 망나라코지
- ④ 누룩코지 : 노루모양으로 생긴 바위

18. 一개 型

‘개’는 작은 浦口, 배를 대는 곳을 이른다.

- ① 어등개 : 어등포(魚登浦)라고도 하며 행원리의 옛이름이다.
- ② 아칭개
- ③ 평풍개
- ④ 지풍개(지픈개) : 바닷물이 깊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⑤ 몰래낭개

19. 一알 型

- ① 남당알
- ② 등대알

20. 一소 型

‘소’는 바다가 육지로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 이른바 작은 灣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복대기소
- ② 안소

21. 一모살 型

- ① 한모살 : 모래가 많아서 붙은 이름
- ② 사생이모살
- ③ 쇠누눈모살 : 소들이 여름철에 가서 누워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22. 기타

- ① 우름섬이 :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므로 붙여진 이름
- ② 드래비
- ③ ᄃ마낭수리
- ④ 문드러니
- ⑤ 굴뚝구석
- ⑥ 보거닙(보구닙)
- ⑦ 연대봉 : 마을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마을에 알리기 위한 봉화를 올렸던 곳
- ⑧ 정등머들(정등머드리)
- ⑨ 소양남도덕(두덕)
- ⑩ 개장터
- ⑪ 말랭이요
- ⑫ 긴머채
- ⑬ 독가름
- ⑭ 벌렛기
- ⑮ 속ᄃ냉이
- ⑯ 하나질성찬
- ⑰ 독대기
- ⑱ 모살것
- ⑲ 개머리
- ⑳ 큰ᄃ마리
- ㉑ 하르방개
- ㉒ 숭앗통바우
- ㉓ 아옴(아흙)
- ㉔ 뒷더지

提報者

윤태방(84세) 김종익(51세) 고계인(48세) 고도수(41세) 장근열(36세)

民 謠

指導教授	金 榮	敦
指導補助	尹 致	富
班 員	文 奇	訓(3)
	金 東	閔(2)
	高 德	順(2)
	鄭 用	文(1)
	安 姬	貞(1)

目 次

I. 勞動謠 II. 童謠

杏源里 調査에서는 짧은 調査期間이었지만 勞動謠와 童謠에 力點을 두어 採錄하였다. 勞動謠는 특수한 民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提報者들이 부르는대로 採錄하였다.

現場論的 調査方法에 따라 口演狀況, 提報者 解說, 辭說, 註解 등이 요구되나 지면관계로 사실소개에 머무는 점이 못내 아쉽다.

表記는 提報者들이 發音에 충실했으며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에 준하였다.

I. 勞動謠

1. 밭 밟는 노래

1-1 어러러월월 어러러월월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월월

어러러월월 재게몰라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월월 어러러월월
요놈의 짐승덜야 혼저나걸라 월월 어러러월월

(강신자, 여·54)

1-2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러 뱅뱅돌아 나간다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월월 어러러러월월 뱅뱅 돌아나간다 어러러러월월
 요놈의 뭉달아 월월 돌아나오라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어러러러월월 월월허민 돌아나온다 월월 어러러러
 월월월월

(강미춘, 여·64)

1-3 간디가고 온디온다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뱅뱅 요뭉달아 들멍 요
 구석 저구석 뱅뱅들멍 불러보자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저뭉뭉앙 혼저박 불리라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요놈의뭉 자국자국마다 무세으름 몰아 인간백성 먹을거 아나가 어러러러
 월월 어러러러월월

(김영열, 여·58)

1-4 간디나가고 온디나오라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월월월월 어러러러
 월월
 축진축진 즈근즈근 불라그네 월월 월월어러러러월월
 출랑출랑 이놈의뭉달아 재게덜걸엄 혼저꽃나게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
 러러월월

(홍복순, 여·56)

1-5 어허허 저거뭉달 잘들여몰라 월월이여이여 월월월월허허라
 이뭉달아 여름훈칠 너희덜도 먹을것하고 주인도 벌영뻘이고 속속하게 걸어
 주라 어어어 월월허라
 간디가고 온디오고 말만흔 이짐승달아 싸움지말고 발로차지말고 소곡소곡
 걸어그네 더운디확확 불령나가자 어어어 월월허라
 [저 뭉달 다 막으라 다 돌아남져 저 뭉 막으라 저 뭉 막으라] 어어 월월허라
 줍씨덜 재게빼라 줍씨덜 잘빼라 저뭉달 도망감져 도망감져 저뭉막으라 저
 뭉막으라 이뭉막으라 저뭉막으라 이어어어 월월허라 어야뒤야

훈바탕은 놀고가고 훈바탕은 견고가자 에이월월하랴

이물덜아 으으 얼른덜른자국낭 튼튼하게 이뻏볼령 고고리랑 마깨만씩 덩
드렁만씩 어어월월하랴 일년에 훈번이로구나 이물덜아 어어어 월월하랴

(강대저, 남·64)

1-6 이걸하민 솟아나온다 어어어 월월이여 요물덜아 월월하여 요구석저구
석 들어가게 볼르라 월월 어러러월월

어러러러 월월이여 어어월 월월하랴 월월 간질가고 온질온다 어어어어 월
월월 돌돌돋는 몰아 훈저가게 어어어 월월라

(김영월, 여·72)

2. 김매는 노래

2-1 검질짓고 굴너른बाट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앵헤야 뒤여로구나
 어기야뒤야 방에로다
 하영먹젠 산전에올랑
 마의정당 책정당줄에
 발을걸련 유울엄서라
 어기야뒤야 옹헤로다
 앵헤야 뒤야로구나

(김영열, 여·58)

2-2 검질짓고 굴너른बाट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고나가라
 훈저가민 언제나오나
 앵헤야 뒤여로다

먼뒋사름	듣기나 좋게
조껏사름	보기나 좋게
앵헤야	뒤여로구나
앵헤야	뒤여로구나
놈의나첩광	소나괴 받름
소린나도	살을메우고
앵헤야	뒤여로다

(강신자, 여·54)

2-3 지세어멍광	오름에 돌은
둥글당도	살을메난다
산천으로	느리는물은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일천만석	다씩은물가
방에방에	물방에야
일천간장	씩은물은
콩콩지는	물방에야
숫아올라	눈으로나베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검질손이랑	죽죽죽죽노리곡
어이여차소리에	베 놓아간다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뒋멍에야	나고나가라
얼만먹엉	배부른밥을
양손받아	빌엄서라

서월서월	어떤게서월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설리사난	서월일러라

놈의나침광	소남괴벽름
서월물은	인씩은물이여
벽름이나도	먹을게웁다
설리사난	서월일러라
어아어아	산이로구나
산넘어간다	물넘어간다

(강미춘, 여·64)

2-4	검질짓고	쿨너른बाट
	앵헤야	뒤여로다
	조라움이	벗이로구나
	산천초목	끓어나지고
	앵헤야	산이로구나
	요내몸은	늪어나지고
	어아어아	뒤여로구나

가면가고	말머는만다
초신을신고	시집을간다
앵헤야	뒤여로다
앵헤야	뒤여로다
어기여차뒤야	산이로구나
검질짓고	쿨너른बाट
초롱초롱	양산초롱
불뼉힐줄은	물라나진다
양산초롱	불밝히소
어기여차	뒤여로다
임도자고	나도자니
앵헤야	뒤여로다
앵헤야	뒤여로다

(홍복순, 여·56)

2-5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고나간다
	어야뒤야	어야뒤야
	에헤야뒤야	에헤야뒤야

언제가민	이최상을살전고
오늘해도	일락서산
다뜨도록	넘어간다
어서검질	불강불강매라
앞으로훈저	매여가게
에헤야뒤야	에헤야야
어허어뒤야	어허어뒤야

(한기월, 여·84)

2-6	이야뒤야	방에로구나
	요검질을	훈저나매영
	저명에나	미쳐나가자
	삼각산을	치돌앙보라
	느지나같은	모물광산뒤
	선제비영	애돌암서라
	앵헤야	방에로구나
	언제나가민	저제나가리
	삼각산을	치돌앙보라

(김영월, 여·72)

3. 멧돌노래

3-1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놈의ㄱ레야	빙빙돌라

어깨도아프고	박박꼴앙
어린아기덜	먹여살리고
훈저키왕	크거람
어멍아방	이야기덜아
철모른	이야기덜아
언제민	어멍아방
허리며	줄라메멍
키웁	나두민
언제민	죽어서
부모공을	가플소나
이여이여	이여도 할라
아이고	이ㄴ래
영안 할민	못살건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여도 할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도 할라

(강대지, 남·64)

3-2 이여이여	이여도 할라
요ㄴ레야	이여이여
ㄴ레나	지거라
훈저 꼴앙	저디나가게
ㄴ레두섬	ㄴ들베 꼴앙
훈저 꼴앙	저디나가자
이여이여	이여
이여이여	이여도ㄴ레

(김영월, 여·72)

3-3 이여이여	이여도 할라
이여이여	이여도 할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흔저꼴앙	저녁이나ㅎ영먹게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울멍밥을먹더라마는
무정ㅎ나네	성아니진다
이여ㄱ레	꼴아나보자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강미춘, 여·64)

4. 방아노래

4-1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삼들이아래	개당장칩의
쇠쿨방에	새글럼서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쇠쿨방에	새글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방에	이여도방에
ㄷ리아래	개당장칩의
쇠쿨방에	새글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ㄷ리아래	개당장칩의
쇠쿨방에	새글럼서라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식콜방에	새글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강신자, 여·54)

4-2 둥글당도	살을메난다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놈의침광	오름에들은
둥글당도	살을메난다
우리성제	삼성제지난
짚어보자	이여도방에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식콜방에	새글럼서라

문착문착	ㄱ루못앙
시계호계	맹질호계
아기야	울지말라
훈저뺏앙	아기주마
요래랑굴렁	이리오라
로채로치라	대채로치라
쉬운방에	힘든방에
놀아보자	놀아보자
잘도훈다	잘도훈다
요런날에	요런일흠사
성도얼만	가실소나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강미춘, 여·64)

4-3 방에 놀래	방에 놀래
설문애기덜아	설문애기덜아
배가고파	울지도말라
배가고파	지은밥은
시루나많고	떡도많다
어야뒤야	어야뒤야
나놀래랑	산넘어가라
나놀래랑	물넘어가라
먼뒗사람	듣기 좋게
조끗뒗사람	보기만 좋게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죇은삭이	좋다 혼들
늦은삭만	못 혼 더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김영열, 여·58)

4-4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식콜방에	새글럼서라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에야뒤야
요놈의 방에	혼저나지영
식콜방에	새글럼서라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혼저나지영
애기나젓이나	픽여사 혼 쥘

손이 붕물언 터지염구나
 기계엇어부난 요놈의방엿귀로
 지젠한 이여도방에러어

(김영월, 여·72)

5. 풀 베는 노래

5-1 칠팔월 흥애기 어서나 비어보자 하늬뵈름이 살랑살랑 혼저비영 몰려사
 주 어기여뒤여 산이로구나
 저산천은 푸릿푸릿 젊어나지는구나
 저산천은 노릿노릿 단풍이 들었구나 에헤에 푸릿푸릿 동배나주
 제비는 속아도 강남을 가는구나
 칠팔월 흥애기소리로구나 어기여뒤여 에헤에 산이로구나에헤에
 지픈 글을 못할망정 물속은 가다나온다에헤에 어기여뒤여 사니로구나
 제비는 속아도 강남을 가는구나에헤에
 저산천은 푸릿푸릿 젊어나지는구나
 산아산아 두설산아 어기여뒤여로구나
 간다간다 나는간다 요만이를 버칭 갈말가에헤에 이어려뒤여 산이로구나
 산넘어간다 물넘어가는구나에헤에

(김영월, 여·58)

6. 해녀노래

6-1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여기가 어디라고
 고향산천 이별하고
 어린조식 떨어놓고
 무정한 금전벌라고
 여기와서 이걱정저걱정
 고향생각 간절하고

언제면은	돈을벌영
어린조식	춧아갈고
우리하르방	춧아갈고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차라차라	밀려라당겨라
이네착이	꺼꺼지고
매어보자	이여도싸나
고향산천	그리웁고
이여싸나	이여싸나
앉아생각	누워생각
고향생각	간절일세
언제면은	고향가서
가족일가를	만나보리
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도싸	이여도싸나

(강대지, 남·64)

6-2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이여싸나
잘잘가는	갓나무배야
솔솔가는	소나무배야
앞발롤랑	허우치멍
뒷발롤랑	거두치멍
이여싸	이여차나
요네착을	버칠말가
요네착을	심영사민
엇인설움	절로난다
우리어멍	날날적의

가시남괴	몽고지에
손에 꿩이	발에 꿩이
지우라고	날날던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어려뒤여	이여뒤여
차라차라	이여싸나
푸른물결	헤치며
요배야	어서가자
허우치멍	가나보자
어여차	어여차나
어기여차	이야뒤야

(김영월, 여·72)

6-3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이여차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어야뒤야
이물에랑	이여싸
이사공아	이여싸
고물에랑	이여싸
고사공아	이여싸
쳐라쳐	이배야점점
쳐라쳐라	어기야뒤야
쳐라쳐	어야뒤야
파랑도에	이여차
도곶쪽에	이여차
이놈잡놈	이여차
우리축는	이여차
배로구나	이여차
우리어멍	이여차
날날적의	이여차

앞마당의	이여차
모닥불은	이여차
손에깡이	이여차
팍을짜고	이여차
날날던가	이여차
어야차	어야뒤야
어야뒤야	이여차
한이구나	이여싸나

(강미춘, 여·64)

Ⅱ. 童謠

1. 遊戲謠

(1) 고무줄놀이할 때

(1)-1 우리는 대한의 아들 딸
 나라위해 싸우자
 영식이 누나는 제고등학교 제삼학년

(1)-2 하얀 눈위에 구두발자국
 바둑이와 같이와 소복소복
 할레루야 숨바꼭질 어디 숨었니
 외로운 산길에 순이발자국

(1)-3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드래요
 샤빠 샤빠 하이샤빠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빠 샤빠 하이샤빠 천구백팔십삼년도

(2) 줄놀이할 때

(2)-1 올챙이가요 배가 불러서요

앞발놓고 명요 뒷발놓고 명요

(2)-2 할망 들어왔다 두부장사 들어왔다

색시 들어왔다 솔뚜껑 들어왔다

모두다 들어왔다

할망 나가라 두부장사 나가라

색시 나가라 솔뚜껑 나가라

(2)-3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신발벗고 모자벗고 들어오세요

(2)-4 엄마 밥줘

몇 숟갈

한 숟갈

없다

울엄마는 깍쟁이

아빠 돈줘

얼마

십원

그래

울 아빠 멋있어

(2)-5 김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인사합니다

가위 바위 보
진 사람 나가주세요

(3) 손놀이할 때

(3)-1 빈대빈대 빈대뽕
가나다라 마사뽕
우리우리 우리뽕
주먹뽕 가위뽕 바닥뽕

(4) 원님놀이할 때

(4)-1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 수탉 잡아서 자기네만 먹드라
우리 집에 와봐라 밥 한 술길 안준다

(4)-2 감자에 싹이나서 이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세야 감자 감자 세야

2. 語戲謔

(1) 야유할 때

종이 울렸네 호랑이선생 시험지 들고 들어오시네
하기 싫은 시험시간 빵점은 자신있어요
연필굴러 알아맞추고 전닝하다 틀켜 버렸네
하기 싫은 시험시간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김경자. 여·13, 김문희. 여·12, 박경자. 여·12)
고희경. 여·11, 한경미. 여·12, 박경옥. 여·10)

3. 자장가

3-1 자랑자랑	웁이자랑
훈저자라	웁이자랑
은즌동아	웁즌동아
훈저자라	웁이자랑
우리아기	자는소리
유기چه물	چه운소리
눔의아기	자는소리
환상비체	چه운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강신자, 여·54)

3-2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웁이자랑	자랑자랑
저레가는	서동개야
이레오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늑네아기	재와주마
물아래	웁들ㄴ든
우리아기	가마귀
존놀개ㄴ든	우리어진이
자랑자랑	자랑자랑
나라에는	층성동아
일가에는	화목동아
동네방상	일뵈잔치 ㄴ울동아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는소리
유기제물	제운소리
늬의애기	자는소리
환상비체	제운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훈저자라	저녁훈영먹게
자랑자랑	웁이자랑
늬아니른	무사영훈느나
웁이웁이	자랑자랑
생각훈민	내가
눈물이	절로남져
자장자장	자장자장
웁이웁이	웁이자랑
가마귀	준놀개ㄴ튼
물아래옥돌ㄴ튼	우리애기
울지말라	울지말라
두술적의	아방웁고
웁이웁이	웁이웁이
언제민	늬식술나그네
업어그네	벌영살코
이젠	어멍어멍
영행	울지말라
어어	기여기여
어진이여	어진이여
우리할마님즈손	훈저자게해줍서
자랑자랑	웁이자랑

(강미춘, 여·64)

說 話

指導教授 金 兩 澤
 指導補助 玄 丞 桓
 班 員 金 美 辰(3)
 吳 姬 淑(2)
 金 令 蘭(2)
 梁 柄 哲(2)
 文 愛 善(1)

目 次

- | | |
|---------------|-------------|
| 1. 범질이통 | 5. 점 잘치는 사람 |
| 2. 범천충 | 6. 지성이와 감천이 |
| 3. 강감찬 | 7. 양태장수 |
| 4. 죽었다 살아난 사람 | |

1. 범질이통

* ‘범질이통’은 행원리에 있는데 행원에서는 수집할 수가 없어서 옆 마을에 있는 월정리에 가서 수집했다.

피약벌이 내리쬐는 한낮에 큰 나무 아래에서 혼자 쉬고 계시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신장이 나빠 몸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학생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라며 천천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

징거(證據)로 불만현 디도(곳도) 아니고, 미신(무슨) 책자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이 그 전설(傳說)로 들은 말인데. 우리가 어릴때, 조그만 현 때이?

[조사자 : 예]

어쨌서 ‘범질이통’¹⁾이라 이리 했는고 허니까 옛날 범련이라 혼(한) 사름이

1)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경에 있는 못이름.

이리 살았던 모양(모양)이라. 그런데 낸중(나중) ‘범질이통’이라 된 그 원인이.
에— 이 구좌읍 평대리²⁾엔 현 더가(한 곳이) 이서 이?

[조사자 : 예, 이수다.]

옛날은 이제 젊은 사름덜은 모르지만은 에 산되농서(벼농사)와 모밀농서를 많이 지었거든. 그래 어떤 홀어멍(과부) 혼자 산되농서를 지었는데 산되가 좋아.³⁾ 그러니까 이젠 그 임제(임자)가 가서 그 산되를 다 비어(베어) 가지고 아직 무끄지도(묵지도) 않고 그냥 밭에 넣어놓고 잊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밭임제 생각에도 「이렇게 곡식이 좋으니까 혹 도적이 부틀 게 틀림없다.」

[조사자 : 도적이?]

어. 도적이 올 게 틀림없구나 해서. 집이 와 가지고 이젠 다시 그 밤이(밤에) 올라가서. 밭에를. 밭에 올라가 가지고 직허노라고(지키노라고) 허니까 아 닌케 아니라, 혼 쇠(牛) 댕개(다섯마리) 몰안 장정(壯丁) 혼 대여섯 놈이 아, 그리로 오거든. 아, 여자 혼잣 몸으로 지금 그 도적을 잡을 수도 웃고. 그래 ㄴ 만이(가만히) 생각을 허니까, 「이거 안됐겠다.」고 험미(낫)를 가전(가지고) 갖다가 즈기(자기) 옷 앞섭 [자신의 윗 옷 앞섭을 잡으며].

옛날은 갈배 적삼이라고 현 게 이서. 감 맥연 입는 적삼이 있는데, 그 적삼 앞을 짝— 허게 찢어 내어 가지고 이만쯤 [손으로 한뼘쯤 찢수 재는 시늬를 하며] 그 도적놈덜도 산되를 무껴야 그 놈을 쇠에 시경(실고) 갈겨주게.

[조사자 : 맞수다]

허는디, 그 여자는 저만쯤이 몰르게 가 가지고 산되 위에다가 그 험벅(천 조각)을 똑똑 부치는 거라. 그놈덜이 이젠 다 무껴 가지고 쇠 다섯에 그냥 짐을 다 시켜노니까 뭐 산되뎀은 절단(絶斷)허여.⁴⁾ 아무것도 웃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예편(여자)이 「이거 어딘 놈덜인디 이걸 해 가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근거를 잡아보아야겠다.」고.

그래 쇠 몰양(물고) 나오는디 그 먼딜로(먼곳으로) 조차단 말이여. 그 밭임제가. 조치고 보니까 아, 그 행원⁵⁾ 지경 지금 아까 말헌 그 ‘범질이통’ 이엔 현 더(곳), 옛날 범련이란 사름이 살았다는 단 디. 아, 그 집더래(집으로) 가 가

2)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3) 벼농사가 잘 되었다는 말.

4) 여기서는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리다’의 뜻.

5)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지고 전부 다 풀어 논단 말이여. 「아, 이딴(여기) 놈덜이구나!」 해서.

그냥 이젠 그 밤이 죽기 집이 가면서 생각을 허니까 이겨 요시(요새)에는 젊은 사름덜은 모르지만 옛날은 그 면(面)을 통치허는 ‘풍헌(風憲)’이 있어. 면풍헌(面風憲)이라고. 이 도적도 잡아 꼭 그 나쁜 행동 허는 사름을 심어(잡아)가지고 벌도 주고 이러는 사름이 잇는디, 그 풍헌첩(풍헌의 집)을 들어갔단 말이여.

그래 풍헌이 줌(잠)을 자다가,

“이 밤중에 웬 여자가 왔느냐?”고.

“아, 영 정(이러 저러)해서 왔읍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뭐 표적을 잡은 게 잇느냐?”

니까

“표적은 아무것도 잡은 게 웃고 나 옷 적삼 찢어 가지고 그냥 산퇴 위에 놓아 두고 왔을테니 그 놈덜이 무꼇을 터이니 산퇴를 전부 풀면서 보면은 그 옷 자락이 나오면 그 놈덜이 해 간 게 틀림웃일거우다.”

그리 생각허니 그럴듯도 허거든. 그 이가 이풍헌(李風憲)이라고 허는 인디에— 이풍헌이 이젠 일어나서 가솔(家率)을 일러 가지고,

“조반을 지으라.”고.

그 밤중에 이젠 조반을 지어 가지고 먹어서 그 밤중에 이제 몰(馬)로, 그 때는 시(市)에를 가야 뉘는거라. 성안(市)을 이?

옛날 성안은 지금 소포(사포)라고 해서 살았으니까. 제주도를 통치허는 사름이.

거길 가 가지고 시(市)에 간 날이 거의 붉계(밝계) 뉘서.

“이게 웬 사름이냐?”

허니까,

소실(事實)이 악하악하(若何若何)해서 왔읍니다. 도적을 잡았는디 이지 처리해 주시오.”

해서. 그 소포가 불러서 그 내막(內莫)을 들어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젠 요새말로 공문(公文)을 써서 행원더래,

“이거 가는 길에 행원에 가서 부치라.”

부치는디,

“행원 오시수라고 허는 사름을 그 행원 신작로까지 전부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써 줄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부치라.”

그래 나오다가 이젠 이 행원을 들렸단 말이여. 들려 가지고 이젠 그 공문을 부치니, 아, 오시수라고 허는 이가 옛날은 뭐꼬. 경민장, 동장, 이장 무신(무슨) 좌수 이런것을 놓고 오시수라고 해서 묵을(마을)을 다스리고 했거든.

[조사자: 냇 뿐인제 마썸.]

또 향나 있는데 뭇인지 이저부런(있어 버려서) 몰르켜라(모르겠다)

[조사자: 아, 예 뭇수다.]

아, 그 부름을 받아 가지고,

“아, 이저 큰일 낫구나. 아, 무신 일이 있어서 아, 오시수를 신작로 앞에 대령하라고 했는가.”

그러나 옛날은 범련이라 허민 뭐 벌벌 튀어(떨어) 가지고 다 신작로로 나왔단 말이여. 나와서 이제는 그 이풍헌은 평대를 가 가지고 그 여재(女子)를 데리고,

“이만쯤 똬시민 시(市)에서 왔을거다. 그러니 가 보자.”

그래서 여재가 왔단 말이여. 오란 보니 옛날은 그 집이 잡으래 멩기는(잡으러 다니는) 사름이 스령(司令)이라서 이? 이름을 스령이라고 지은디 요새 ㅁ트민(같은) 순경이지.

그러니까 그 사름덜 혼 댓허고 댓(땀)이 내려와서,

“이 오시수가 어디 잇느냐?”

고 해서.

“여기 누구누구가 요긴 누계고, 요긴 누구가 산다.”고.

“여기 범련이란 사름이 어디 사느냐?”

“아, 그거 요 신작로 우(上) 요기 삽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젠,

“군민을 전부 총동원시키라.”

“무신 일입니까?”

“아, 거기 가민 알제다.”고.

그래서 이젠 총동원시켜 가지고 거기에 갖단 말이여. 가서 이젠 산뒤 무꾼

것을 전부 다 클르면서(플면서) 보니까 아닌케 아니라 그 여자 적삼 옷자락이 들어 잇단 말이여. 게 그걸 가져다가,

“기냐? 아니냐?(맞느냐? 틀리느냐?)”

대니까 이거야 딱 맞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범련이란 사름덜은 법(法)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이전 도적놈의 굴형(구덩)이니까 안 뉘겠다.”

고 해서 거기서 사름을 못살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기 물을 파부럿어. 통을. 그래서 ‘범련이통’이라고 해서. ‘범질이통’이라고도 하여. 그런 사름이 이섯고(있었고) 그런 이름이 이서(있어).

‘범질이통’이 범련이란 사름이 살았는디 낸중은 그것이 ‘범질이통’ ‘범질이통’ 불러서.

[조사자: 그 물은 사름덜이 먹어 마섬?]

아, 그 물은 아니 먹지. 그 물은 이제 산촌(山村)에 이시니까(있으니까) 우마(牛馬)들이나 멕여.

[조사자: 아, 예]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이찬희, 남, 87세)

2. 범천충

범천충이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겼던 모양(모양)이라. 보통사름허고는 어떻게 무신것이(무슨것이) 틀리게 낫던 사름인 모양이라.

그 사름이 이 행원¹⁾과 한동²⁾ 양 새(사이); ‘더뱅어 물’ 이랜 현 디서(한 곳에 서) 살았맨 현 말을 들었는디 전설(傳說)로는 그 이가 한동 사름이라. 그런 말이 이서.

그 이가 혼 번은 어디 서이(서쪽) 무신 동길(다닐) 일이 잇어서 동겨서 돌아 오다가 보니 날이 저물아 부럿어. 물을 타서 마상(馬上)에 오는디 웬 여자가 앞일 슥 걸저든.

1)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2)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저저 밤이다가 웬 여자가 혼자 걷는고?”

그 여자 뒤를 조치니까(쫓으니까) 물을 찾지만은 못 조차.

[조사자: 그 여자도 물을 타부난 못 조찬 마셈?]

아니여. 범천충이 물을 타고 가는데 그 여자는 앞이 걷는디 아, 물을 몰안 가민 그 여자는 재기(빨리) 가 버리고, 뜨게 허민 뜨게 가꼭³⁾ 이렇게 해서 생긴 만날 수가 어서. 만나질 못 허여.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오는 것이 한동 지경을 다 당했단 말이여. 당허니까 그 여자가 범천충보고 말하기를,

“이제 너의 집이 이제 곧 화재(火災)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가산기물(家産器物)을 다 내 놓으라.”고.

아, 이렇게 허거든. 아, 그때야 사름이 아닌 줄을 알아서. 아, 집이 간 보니 집이 식구들은 다 잠(잠)을 자고 잇거든.

“아, 일어나라.”고.

“이게 웬 일이냐?”고.

“에— 지금 곧 화재가 난다고 해서 이룬다.”고.

“가산기물들을 다 일로 바깥으로 다 내 놓으라.”고.

그걸 다 내놓자 아닌케 아니라 불이 낮단 말이여.

[조사자: 그걸 다 내놓자 마자 마셈?]

응.

[조사자: 어평허영 나신고 예. 어평허영 불 나수까?]

[웃으시며] 불이 어평한사 나신디. 거기서 불이 나 노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미리서 예고를 해 준거지계. 그러니까 그 보통사름이면 예고를 안 해줄 터인디 이게 특이헌 사름이니까 아마 미리서 말을 해 주엇던게라.

[조사자: 귀신이엇구나. 여자가 예?]

미시저?

[조사자: 계민 여자가 귀신이엇구나 예?]

3) (범천충이) 말을 타고 따라 가면 그 여자도 빨리 가고, (범천충이) 느리게 가면 (그 여자도) 느리게 갔다는 말.

응. 여자가 밤이 오면서 갈리게 된 때에 그 말을 해 주었던게라.

그렇게 했ندی, 것도 그래서 그 범천충이 그 가산기물을 살렸던 말을 듣고 그 후제는 건 우리 욕을 후제라.⁴⁾

한동에다가 어둡으면 불이 나. 계민(그러면) 이디서(여기서) 불이 나민 동리 사름덜이 모여가서 그 불을 끄노랜 허민 또 저쪽으로(저쪽으로) 강(가서) 부터 가지고 아, 그놈의 췌화(怪火)가 나 가지고 그 군민덜이 여간 췌롭지 았앗다 고.

“이저 큰일났다.”고.

계 밤들어가민 한동 사름덜은 줌을 못 자지.

그래 혼(한) 중(僧)놈이 지나다가

“여기 밤에 불 나지 아니하냐?”니까

“그렇다.”고.

그러니 그 중을 심어(잡아) 가지고

“이것을 예방을 해줄 수 없느냐?”고 하니,

“그렇다.”

고 했단 말이여.

이 한동 지경이 그렇게 생겼다고 허여.

그것은 그런디, 이 한동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이 옛날은 ‘췌’엔 해서. ‘췌’라. ‘췌변기’엔 영 현말(이런말)이 이서.

“이름을 고쳐야지만 뉘겏다.”

이름을 뉘시라 고쳤느냐 허민 한동이라 해서. 한수한(漢)자 허곡 동녘동(東)자 해서.

그래 한수한(漢)자가 이는 큰한, 물이 크면은 불을 끈다해서 이 한수한자를 썼어.

그러니까 이 물 동편이라 이름을 고쳐 노면은 그 췌화가 떨어져서 웃단 말이여.

4) 그 후에것은 우리가 자란 뒤다.

우리가 혼 열댓살, 스무남은 적에 계도(그래도) 그 불 거시기 허는 것을 지난 밤은 어디 불났져, 어디 누계 집 불났져 허는 걸 본 일이 이서. 그것도 약 혼 6, 70년전 일이지.

[조사자: 계난 불난진 집이 불난거구나 예.]

응. 집이 불났주.

[조사자: 도깨비불이었구나.]

[웃으시며] 췌화 지. 췌화.

(1985년 8월 18일, 북군 구좌읍 월정리, 이찬희, 남, 87세)

3. 강감찬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 제보자는 마늘을 다듬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혀 얘기를 모른다고 하다가 조사자들이 같이 마늘을 다듬으며 얘기를 청하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며 이야기할 뜻을 비쳤다.

“혹시 훌륭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강감찬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다며 얘기해 주셨다. *

강감찬(姜邯贊)이 인시(얼굴)가 좋게 낫어. 그 얼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댜거든.

하니(그러니), 대별왕 불러 가지고,

“나 얼굴을 아주 막 갖게 맨들아 달라.”고.

박박 없어지게 맨들아 놓으니 그 얽은 궁기(구멍)가 더 귀인(貴人)색만 나고 아니 댜거든. 그때 그 소별왕 불릿주. 족은(작은) 아집을 불려서,

“입도 토라지꼭 눈도 토라지게 다 그렇게 맨들아 달라.”고 하니, 원 그 어디 강(어디 가서) 놓앗자 강감찬의 앞을 보고서는 강감찬의 부모도 원 어디 돌랑 땡길(데리고 다닐) 생각이 웃어. 게 어디 돌랑 가젠 허민(따라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아덜(아들)을 달래그네(달래어서).

훈 번은 김정승집이(김정승집에서) 결혼식을 헌번 허난,

“아버지 나도 가카?(아버지 저도 따라 가도 돼요?)

“아, 나덜(내 아들)오지 말라. 놀라그네(너는) 나 케기허곡(고기하고) 떡이영 하영(많이) 받아당 주마. 놀암시라(놀고 있거라) 이?”

경향연 간 이시니,

“아버지 나도 왓수다.”

원 강감찬이 어찌 좋아호던지. 게 강승상(姜丞相) 아덜이엔 허니까 ㅈ튼(같은) 상으로 출령(차려서) 아니 줄거여?

[조사자:예, 맞수다.]

주니, 먹어 가지고. 밥만 얻어 먹고 강감찬이,

“신랑허곡 훈 번 댁번(答辯)이나 해 보겏읍니다.”

[조사자:댁번 마썸? 댁번이 뭐이파?]

댁번-. 댁번도 몰라? 영 서로 말허는 거-.

[조사자:아! 답번.]

응. 아, 저거 모냐 좋은것이 신랑허곡 댁번헌멘.

“거 좋다.”고.

남녀노소(男女老少)가 좋아허여. 이젠 신랑안티 가서 서로 수작(酬酢)허고, 거 신랑이 모자를 썸 이섯는디 손으로 탁 치멍,

“이새까 이거 쓴 거 뭐이냐?”고.

[조사자:강감찬이가?] 응. 쳐보니깐 여이(여우)여.

[조사자:신랑이?]

응.

“김정승 사위 잘 했소.” [강감찬이 한 말] 그게 그때부터 강감찬이 명예를 얻었주.

그래 강감찬이 장래 커 가지고 마, 나주목사로 강감찬이 떠났는디, 나주목사로 떠나버렸는디 산담에 둔갑헌 진대란 놈이 잇는디.

[조사자:진대? 진대가 뭐이파?]

배염이주.

훈 번은 서울로 가서 둔갑을 퍼 보려는디 강감찬이 호나 진대를 이겨 가지고 서 산담에 잡아 놔 두엇다가 나주목사로 떠났다 허니 어서 틈을 타 가지고 서

올로 내려 갔는데, 거기 김정승 딸(딸) 하나이 혼례(婚禮)를 못해 가지고서 거기 30세가 가깝게(가깝게) 뉘어 가는데 김정승 자꾸 저들양(근심하여).

“아버지, 어찌 그리 근심합니다?”

“가지 말라. 느(너) 가민 분명 살지 못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큰 대문에다가 내가 방(坊)을 부쳐 가지고서 그 글자 채우는 이가 이시민(있으면) 어떻(어떻게) 안합니다.”

“그래, 아뢰라.”

글을 써는데(쓰는데) 뭐라고 허는가 하니,

「불식두견은 단소정(斷所頂)이라」

그래 가지고

[조사자 : 무슨 글자 써시고 마썸?]

불식두견이라고 거 두견조(杜鵑鳥)가 있어. 두견조가 그거 다른것도 안 먹고 제 냥으로(자기대로) 제 피 빨아 먹영(빨아 먹으면서) 사는 새라. 두견조가,

[조사자 : 아, 예]

경 말했주.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해서 큰 대문에다가 딱 부치니 사방 거 손님덜이 그 글에 짝힐 수가 있어야 지.

[조사자 : 불식두견에 단소정마썸?]

응.

[조사자 : 단소정 혈매 단자는 무슨 단자좌]

꿈을단(斷)자.

[조사자 : 예. 제민 소자와 정자는 무슨자 씩니까?] 고만셔봐(가만 있어봐). 이쳐 부러트주(있어 버렸다).

[조사자 : 예-, 뉘수다.]

산담에 잇는 진대란 놈이 갖거든. 그 둔갑현 배염이. 그 둔갑현 제니까 인재(人材)나 대맹이(머리) 오죽 좋아실거라?

[조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거 저 글이나 혼 짝 불러 가지고서 김정승 사위로 들라.”고.

“난 키가 쏠라서(작아서) 뇌리지(보지) 못하것어. 뭐라고 했느냐?”고.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했다.”

“진대란 놈 저거 글공부 했나?”

이젠 산담에가 ㄹ만이(가만히) 누웠주. 그때가 아마 이태백(李太白) 죽은지가 오랫동안 모양이여. 서촉(西蜀)을 가 가지고서 이태백안티 가서, 아마 서촉에도 혼례란 것이 있을테니 글재를 얻자고. 배염놈이 물영 가민(물으면) 잘해 주어. 그뻐 어떻.

원 멧날 메칠사 갔던지. 서촉을. 서촉을 가 이태백 무덤을 가서 북탁북탁 끊으니 아, 요새 그 혼령(魂靈)이란 것이 있어서,

“누가 내 무덤을 파느냐?”

“예. 조선(朝鮮) 산담에 잇는 진대입니다.”

“너 어째서 내 무덤을 오란(와서) 파느냐?”

“선생님안티 글재 혼 재를 얻자고 왔습니다.”

“뭔재냐?”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흰 글자를 짝을 불러 주십사.”

ㄹ만서 보니, 울커니. 요놈잡을 강감찬이 있으니 불러 주자.

“너 불러 줄터이니 너 구녕(구멍) 잘 막아라.”

“예.”

“미룩비룩은 청대위라 해라.”

공중에 그 날이 굿젠허민(굿으려고 하면) 똥소리개란 놈이 주룩주룩 아니허여? 이겨주. 미룩비룩은 청대위라.

[조사자 : 한자(漢字)로 무신 글자라 써신고 예.]

거 아무 글자를 쓰구대구(쓰던지 말던지).

그만 들어 가지고서 이젠 나온란 보니[구멍에서], 또 거길[김정승집] 건너간 보니 사름덜이 있어.

“뭐라고 하느냐 글자는?”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거 뭐야, 그까짓것 뭐.”

“미룩비룩은 청대위지.”

이젠 그 이정승도 잇다가,

“내가 사위허겄다.”

김정승도,

“내가 사위허겠다.”

서로 막 부터 가지고서 싸움 발악을 해. 이정승은 아덜(아들)도 여라개고(여
럿 있고), 딸(딸)도 여라개고, 김정승은 그 단지 그 외딸 하나 뿐이며, 나라에
서,

“김정승안티 주라. 이정승은 조식(자식)이 많으지 않으나?”고.

“김정승은 그거 아들 목 딸목(아들 몫 딸 몫) 하나 뿐이지 않으나?”

이젠 김정승이 데리고 가서 잇는 곳을 물으니[거처하는 곳], 날로 말허민(뺨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산덤(山頂)에 잇읍니다.”고.

[조사자: 산담마썸?]

응. 산덤에.

“산 가운데 살면서 무전무토(無田無土) 허곡 조실부모(早失父母) 허곡 해서 삽
니다.”고.

“그러냐. 경허민(그러면) 산덤에 잘 게 없다. 여기서 살고 가지 말라.”고.

저기서 살면서 이제 그 결혼날은 결혼식 해 가지고서 사는디, 강감찬은 나주
목사로 가서 ㅈ만서 보니 국가가 어지러운 통에 큰일 낫거든. 그저 험(해야할)
공서(公事)도 어리발 주리발 허멍(대강대강 하면서) 언젠만 가마를 타 가지고서
올라가서 결[진대를 말함] 죽여야지.

허는디, 경 정 허멍 혼도(限度)가 당하니 사직(辭職) 놓아 가지고 올라가는
참에 김정승참에 갔어. 그 김정승은,

“세상세계(世上世界)에 웃는 사위를 했다.”

고 해서 치신(致身)이나 해 보자곤 강감찬일 들어 았혔어. 요건[사위, 즉 진
대를 말한다.] 벌써 귀신잇는 몸이라.

“아프거라.”고.

머리딱 짝 수건으로 지고(지끈) 매고 들어누운 참이여. 김정승이 사위안티
가서,

“야! 나주목사가 가다가 널 만나겠다고 허니 나오라.”고.

“아이고 아파서 갈 수 웃읍니다.”

“[목청을 높이며] 거, 어디 누가 부르는디. 거 사위난 죽지 않을 정도만 뉘면

끄서내(끌어내)! ”

하고 호통하니, 나주목사안티 호통을 들으니 분허거든.

“작대기 지프꼭 못전져도(못견디어도) 나오라.”고.

[조사자: 김정승이?]

아니. 김정승 사위가. 그냥 박박 털멍(멜면서) 나오니 강감찬이,

“거, 내 눈 앞에서 본색(本色)으로 못 빙겟느냐?”

고 호통하니 이젠 느랏이 자빠지거든(기운없이 꼬꾸라지다).

“김정승 사위 잘 했소.”

하니 깜짝 놀라거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나?”

“김정승 사위 잘 하셨다니 내가 올라가는 참에 친심(親心)허자고 왔소.”

[조사자: 친심?]

친심을 몰라? 서로 대하자고 오노라곤 현 말어주.

“이젠 어떻게된 뉘느냐?”

고 하니 김정승의 홀목(손목)을 잡아,

“이제 숯불을 피우라.”고.

숯불 막 엉정허게(새빨갈게) 피와노니,

“네 손수 저 불러래 들어라.”

하니,

[조사자: 강감찬이가 마썸?]

응.

슬슬슬슬 기어들언. 김정승 아까븐(아까운) 사위 불에 탄 죽게 되었어. 거 막 사라지니 결상 갖디다 놓고, 요새 거 병원의 침대 닳은거 그거 숯불 우에 앓디다(가져다) 놓앙,

“김정승 똥 이 우터레(위에) 눕허라.”고.

벌써 새끼 배연 배염 새끼가 픽픽 거 더운기 들어가니 나오거든.

“어, 김정승 웨손(外孫) 많이 봤소.”

[제보자, 청중: 웃음]

그래 가지고 강감찬 아니민 국가가 망힐 때랏주. 그거 새끼꺼와 똥(똥) 그 거 몬(모두) 수(術) 쓸 때민 나라 망힐겨주.

[조사자:게민 강감찬 덕분에 나라 구했다 예?]

그렇주.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강경석, 남, 95세)

4. 죽었다 살아난 사람

[조사자:할아버지. 죽었당이네 살아난 사람 이시민(있으면) ㄹ라춤서(이야기 해 주십시오).]

죽었다 산 사람은 정동식이라고 잊지.

[조사자:정동식?]

응.

정동식이라고 허는 사람이 이신디 죽어 가지고 저승을 가니,

“너 ㄹ(罪)에 범(犯)하시니까. ㄹ(우)로 ㄹ(還生) 시겨(시켜서) 내 보내라.”

[조사자:소로?]

응. 소로.

ㄹ로 ㄹ(還生) 시겨 내 보내니 이놈 커 가지고서 하건(이러저러한) 발갈쟁(발을 갈려고) 허곡 짐 시끄저 허민 ㄹ(우)로와.

에, 이놈 뭐 ㄹ(우)는 사름허곡 틀리난 몸에도 털 돋고 뿔 돋고 다 그렇게 ㄹ(우)노니 원 ㄹ(우)거든.

“에, 이놈 또 죽어 부러야지 안 ㄹ(우)겠다.”

사름 가 가민(가까이 가면) 범접(犯接)을 못허게 케후려 불곡(뿔로 받아 버리고), 발갈쟁 허민 하건(많은) 연장 다 부수아 불곡 부리질 못허여.

“에, 못쓰겠다.”고.

“모관¹⁾에 가 팔아 부러야겠다.”

모관에 가 팔아부니,

“이놈 그래도 ㄹ(우)를 다 못 다스려시니 배염(뺨) 몸으로 ㄹ(還生) 시겨 내 보내라.”

1) 이조 500년 동안 제주도를 삼현분립, 통치할 때 제주목.

[조사자 : 배염으로?]

응.

배염으로 환설 시겨 내 보내니 이삼 사월에는 좋아. 딱딱현(따뜻한) 새남석에
기여 땡기니(다니니) 입동(立冬) 되면 10월 저슬(겨울) 들민 추운기가 나서 그
궁기(구멍) 훑아서(찾아서) 들어 땡기기가 꽤 심난(甚難) 허거든.

“에이, 어떻게 술째를 부려 가지고 또 죽게 해야지 안 뻘짓다.”고.

서울 대감댁 정한강네 집 이런 (문지방을 두드리며) 이문돌 우에다가 탁 걸러
젓다가 누가 가가진 물젠 허곡 대구리(머리) 들러가민 다 놀래서 그냥 도망
가서.

[조사자 : 이문우에 마썸?]

응. 저런 돌 우에.

훈 놈은 잔뜩 먹은 놈이 잇는디 작대기 지프곡 가다가 보니 이놈의 것이 대
구리 들러 가지고서 허거든.

“아, 이진 뭐이냐?”고.

그냥 잡아 골겨부니(갈겨 버리니) 죽었어. [제보자, 청중 : 웃음]

[조사자 : 술먹은 사름이었구나 예?]

응. 죽언 저승을 가니,

“이젠 이놈 췌를 다 다스렸다.”고.

“에— 서울 아무가(家)의 집으로 가서 생남(生男) 시켜 준다.”고.

이젠 사름으로 화(化)해 나올거 아니여?

[조사자 : 예.]

사름으로 나오라서.

하니, 그 지(자기) 죽은 날도 알고, 지 묻은 디도(곳도) 알고 다 알거든 이?

[조사자에게 확인하듯 하며]

내이(나이)가 훈 이십세 뉘지. 내이(내가) 살아난 자췌(자취)가 그대로 잇는
가? 웃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훑안(찾아서) 오란 보니 지 무덤, 그 산도 그냥
잇고, 쫓기(자기) 살아난 집이 그대로 잇어.

와 가지고 내가 이젠 죽은 줄 알고 잇는디, 정동식이 가고 보니 사름덜(사람
들)이 머리에 흰발(흰 머리털)이 희득희득 허니 나 잇어.

[조사자 : 흰머리가 예.]

응.

동생 멧허고 그디 안진것이(앉은것이) 지 짐승이엇든 모양이라.

[조사자: 웃음]

그래 저승 하루 해(하루 해), 저 침(참) 이승 훈 해가 저승 하루 해 말이 온(옴은) 말이다. 클로(그렇게) 말허민. 그럭허곡(그리고) 하필 지 죽은 제삿날이 었어.

아잔(앉아서). 이 말 저 말 해서 아무 눈밖은 어찌고 허는디 밤 하나 재우(겨우) 풀아(팔아) 먹어 부러트든(버러트든).

[조사자: 하나만 풀아 먹언 예.]

응. 하나만 풀아먹언 그대로 해산(解散) 허연 그대로 잇거든. 멧해야(멧년이) 뻗는지 모르지만은. 안장 놀다가,

“에— 여기 놀암시민 제사나 보겏다.”고.

제사보러 가니,

“저놈덜(저놈들) 오늘 나 나시(내 몫) 허는 제사로구나.”

제사먹영 제물(祭物)이영 많이 가져당 주니 먹고 잇더니 정동식이 허는 말이,

“오늘 저녁 흥는 제사가 나의 제사라.”고.

거 벌쩍 뿔거 아니여?

[조사자: 맞수다.]

“아, 이거 어뎡 현(어찌 된) 말이나?”

이거 일천상(여러가지) 말을 다 마르니(말하니) 제사 먹영 간 그 일가(一家)들을 다 문중(門中)을 모였어. 문중을 모여 가지고서, 형제간 부를순 웃고. 다 조상족장(祖上族長)이여.

[조사자: 조상족장?]

응.

모두 그저 하르방광(할아버지와) 아저씨 베끼는(밖에는) 안 뒀주게. 그저 연하(年下)가 뒀노난.

[조사자: 아! 예]

불과 훈 이십세에 지나지 못했는디.

“인사허지 말라.”고.

“혼(魂)은 내가 여기 혼이지만은 때(時)는 여기 때가 아니다.”고.

“내가 살아난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왔다.”고.

“내가 여기 살래(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 집으로 돌아간다.”고.

경 허연(그렇게 해서) 뒷날은 그냥 떠나서 서울로 그냥 올라가 부렸주. 그러나 그 옛날 정동식이 하나 그 이가 죽언 침 몇번 도환생(道還生)을 해났주. 그 후젠 죽엇당 살아난 사름 말이 으서(없어).

[조사자:게민 정동식이엔 현 사름은 어디 살아난 사름이꽂?]

서울.

[조사자:서울사람. 게민 그 말은 어디서 들옵디가?]

고만서바(가만히 있어봐). 응, 그 말은 정이서 들엇는디 이쳐부러서.

[조사자:에-]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강경석, 남, 95세)

5. 점(占) 잘 치는 사람

*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담 잘 하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 왔다고 인사를 드리자 큰 소리로 웃으시며 마루로 올라 오라고 하셨다.

더운 날씨인지라 얇은 겉옷 한 벌만 걸치고 계셨는데 손님에게 멋적은듯이 자꾸 옷을 만지작거리며 담배불을 붙였다.

시골집치고는 넓은 집이었는데 마루에서 내다보니 시골 냄새가 물씬 거렸다. 조사자가 녹음기를 꺼내자 녹음에 익숙한듯 잠시 쳐다 보다가 준비가 다 되니 얘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

옛날에 숙종대왕(肅宗大王)이라 허는 거시기가 이섯는디 해동(朝鮮)에 어떤 사름이 숙종대왕허고 ㄱ튼(같은) 동년 동월 동일생(同年 同月 同日生)이라고 허거든. 동일 동시 ㄱ지(까지) 이제 ㄱ튼 거시기라고.

[조사자:시(時) 꺼정(까지) ㄱ탄 마썸?]

응.

점(占)을 잘 허는 이제 점쟁이가 있다고 허니까 그 사름 이젠 숙종대왕허고

동갑이라도 걸인뻘(밖에) 안 돼서. 걸인 노릇뻘 못허거든. 걸인 노릇뻘 못허곡 호연,

“이상하다. 우리 어멍, 아방은 나허고 숙종대왕이 동갑이라고 허고, 막을(마을) 사름도 다 경(그렇게) 낀디(말하는데), 숙종대왕은 정(저렇게) 대왕 노릇을 해서 이제 거시길 허고, 나는 이렇게 빌어 먹으면 게민(그러면) 팔자가 어찌 동갑에 경 차이가 있느냐?”

이래서 점을 잘 허는 점쟁이가 있다고 허니까,

“훈 번 점을 가서 쳐 보자.”고.

점을 간 치니까,

“점채를 내라.”고 허거든.

점채를 얼마나 내신지는 모르지만은. 점채를 내고 점을 천 허니까니,

“너는 이제 걸뱅이뻘 안 돼겠다.”

영허연 하니(이렇게 하니),

“우리나라 숙종대왕허고 내가 동갑입니다.”고.

“동갑이라 마썸. ㄹ튼 동월 동일 동시생인디 어찌 그럴 수가 잇습니까?”

영허니, 이제 그 점쟁인 그걸, 이 말이 온 말인지 그른 말인지 모르지만은.

“숙종대왕은 독(닭)이 울때에 즈시(子時) 되민 저게 우는겐디(우는 것인데) 쳇(첫) 고개를 들러서 ‘곡곡’ 해서 날개(날개)를 ‘탁탁’치고 우니,

[고개를 쳐들며 닭이 머리를 들어 우는 모양을 하며]

그는 임금 노릇을 해서 대왕 노릇을 허고, 너는 ㄹ튼 시(時)에 낫다고 헐지라도 독이 막 소리 죽여서 ‘곡-’해서

[고개를 내밀었다 숙이며]

야개(고개) 숙여내 막 녹아가는(나즈막해가는) 소리, 게니까 넌 문전걸인(門前乞人) 뻘 안 돼겠다.”고.

경 허여난 점쟁이가 있다고 허여.

[조사자 : 예- 재미진 이야기우다 예?]

(1985年 8月 16日, 북군 구좌읍 한동리, 김근호, 남, 82세)

6. 지성(至誠)이와 감천(感天)이

요새 보통하는 말이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호주마는(하지만) 아무라도 경호주(그렇게 한다). 성의(誠意)를 가지면은 하늘도 감동(感動)을 현다고.

헌디(그런데) 그 지성이엔 현 것도 사름이고, 감천이엔 현 것도 사름이라.

지성이엔 현 것은 아자 두서 아짐만 호고 아자그네 조름으로 뱃긴 걸지 못허 꼭,¹⁾ 감천이엔 현 건 이젠 봉사(奉事)란 말이어. 봉사라서 어둑언 바래지 못허 꼭.²⁾

아! 요것 들이 이제 만나서 이젠 벗을 헐 걸로 해 낫단 말이어.

헌디, 자 눈 어둑언 앞 바래지 못해서 땡기지 못허는 놈허고,³⁾ 또 아장 어디 일어상 걸지 못허는 놈이⁴⁾ 들이 만나노니 어디 살 수가 잇느냐 말이어. 뭐 살 수가 웃엇는디(없었는데),

“자 이제 어쩔꼬?”

해서 이놈들 이젠 께를 내기를 어떻 해신고 허니까, 미녕(무명·木棉布)을 이제 혼 필 바짜서(바꾸어서) 미녕을 몸뚱이에 감아서 돌돌돌 호꼭, 지성이 호는 놈이 따(地)으로만 아자(앉아서) 몬직으니까(움직이니까). 그렇게 뉘저라. 서로 이젠 몸뚱일 무껴짜서(묶어 놓다). 아자서 영 몬직젠(움직이려고) 걸어가니 이젠 동생은 그 조름(꽁무니대)에만 조칠거(뚫을거) 아니라재.

[조사자: 예. 맞수다.]

무께(묶어서) 이젠 줄 메어 놓은 거니까 제.

경호멍(그렇게 하면서) 가단 보니 어떻 이제 지뉘 살 수 웃고 어떤 소남이 호나 잇거든. 소남이 호나 이시니까,

“에이, 씨발놈의거, 요기서(여기서) 우리가 이젠 다 죽어야 뉘겏다. 굶어 어

-
- 1) 지성이라고 한 사람은 앉은뱅이로서 앉음밖에 못하고 앉아서도 꽁무니로밖에 걸지 못하고.
 - 2) 봉사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 3) 눈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놈허고.
 - 4) 앉아서 어디 일어서서 걸지 못하는 놈이.

다 강(가서) 굶을 수도 웃곡.”

행(해서) 이제 감천이보고,

“미녕을 이제 지성이가 미녕을 이제 클러내라(끌러내라).”고.

몸뚱이 감은 걸 클러내라고 해서 클러던 말이여. 클러서 주니까 아, 그 지성이 놈이 클러 미녕을 갖다 그 소낭(소나무) 가지더레 가 자꾸 매젠 허여 가니까 (멜려고 하니까) 하여간 걸어전에 이제 그 석(곤)을 심제(잡게) 뒀던 말이라. 손 내밀앙(내밀어서) 심언,

“자, 요기서 이제 우리가 둘이 다 죽자.”

허연 이제 눈 어둡은 사름은 비래지(보지) 못허곡 뒷 허난게. 걸진 못해도 지성인 눈으로 비래도 말 서로 궂는(말하는) 거난게. 아맹아맹(이러저러) 허자고 허영 허난에 홀 거(할 짓) 아니라게. 허연,

“죽어야 뒀겠다.”고.

영해서(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목을 메어서 둘이 다 궂찌(같이) 목 메어서 죽을걸로 허연 허더니만 어떤 낭밭(나무밭) 가운데로(가운데로) 백발 노인이 나오면서 백발 노인이 와서는,

“너 이놈덜! 허는게 뭐이나 ”

주저주저(머뭇머뭇) 해서 이제 허니까,

“너인 어찌해서 이렇게 만났느냐?”

“아맹아맹 해서 멩기단 이제 질에서 만나서 허는디,⁵⁾ 나는 안자두서 뺏기는(앉아서 밖에는) 이제 걸지 못허곡, 이 사름은 이제 눈 어둡어서 비래지 못허곡 영허니, 나는 비래지는 사름으로 이제 죽을 걸로 해서 이제 벗을 해서 이 사름을 궂찌 동행(同行) 허는 길입니다.”

“응. 그거 잘했다.”고.

“게민 너는 이걸 클러봐라. 클러노면은 내가 사름을 보내서 이제 죽였던 살렷던 헐테니까 클러노라.”

허니 클러난(끌러 놓아서) 아자시난(앉아 있으니) 아쟈더니 혼 사름이 나온 후제는(후에는),

“너네가 여기서 죽을라고 했느냐?”

이렇게 허니,

5) 이러저러 해서 다니다가 이제 길에서 만나서 하는데.

“예. 죽을라고 했습니다.”

“죽긴 왜 죽느냐. 너네가 그만헌(그만한) 노력을 허곡 빗래지 못하는 사람은 빗래는 사람 조름에 조치곡, 빗래는 사람은 발로 서서 걷지 못해서 아자두서 문직문직 허는디 서로 저시기가 된거 아니냐. 서로 배필(配匹)이 된거 아니냐.” 하니,

“죽진 안헐거우다. 죽진 안헐건디 내 나 쏘는대로(말하는대로) 해서 너네가 꼭 맞으면 사는게고 나 쏘는데로 해서 맞지 않으면 너넨 다 죽긴 죽어야 된다.”

이래서 이젠,

“이제 막무가내 아닙니다.” 해서.

“좋습니다. 허겿습니다.” 해서.

“예. 내가 여기 이제 가면은 사람을 보낼테니까 사람허곡 물자를 보낼 것이니까 그 물자는 뭐인고 하니 앗앙(가지고) 오는 사람덜이 앗앙 올거니까 그 사람덜이 허뽀(조금) 너네 하루(하루)ㄷ튼 시험을 봐서 에- 나 쏘는데로 뉘민 하고, 안뉘면은 너넨 죽는 것이다.”

하니 이젠,

“아! 경 허겿습니다.”고.

허연 돌아간 오는 진(것을) 보니까 항망테기

[조사자: 어떤거 마썸?]

항망테기.

[조사자: 항망테기? 항아리 마썸?]

응. 항아리.

“이것에 흰 ㄹ루(가루)를 담아서 오란 너네손에 ㄹ루이 부떠시민(붙어 있으면) 죽게 뉘고, 아니 부떠시민 살 것이다. 그 사람덜은 손에 ㄹ루이 안 부뜨다. 아니 부뜨게 그 사람덜 손에 ㄹ루이 부뜨고, 너네 손에 ㄹ루이 안 부뜨민 너네는 살 것이다.” 하니

“아까 그대로 허겿습니다. 무관(無關) 아닙니다.” 허연.

하여튼지 사람손에 뭐 들렁(들어서) 왓거든. 들렁완. 앗앙은 저 보니 춤 거시기 흰 사람덜이 ㄹ뚝(가득) 망테기(항아리)에 ㄹ루이 이서.

그 망테기 영 부리 잇는거 아니라게.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이디(여기) 손을 질러서(집어 넣어서) ㄱ루를 문직아서(만져서) 손에 ㄱ루가 부명(붙어) 나오면, 부뜨민 죽는 것이고 부뜨지 안허민(않으면) 사는 것이다.”

영 허는디, 아! ㄱ루가 손 질러그네 그 ㄱ루가 안 부뜰 수가 이서? ㄱ룬(가루는) 자꾸 부명 나오거든. 그 사름덜은 이제 ㄱ루 안 부명 나오거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허니, 그것은 사름이 아니고 신인(神人)이라 말이며. 조화(造化)를 부껴서(붙여서) 허는저라 말이며.

허니, 만날 멧 번 이제 거시길 해도 자꾸 ㄱ를 부뜨니 저것들 확실히 헐거라 말이며.

경허연 영감이 나왕(나와서),

“어떻게 뗏느냐?” 허니

“ㄱ를가 부뜨긴 부땀습니다마는(붙읍니다마는) 해도(그래도) 죽진 안 허갓읍니다. 죽이진 못 허갓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며.

“아! 경허냐(그러냐).”고.

“경허민 뗏다.”고.

경해서 이제 그 시험받아 불려고 해서 경헌겨주게. 이제 클러났단 말이며.

궤풀어서(모두 풀어서),

“너네 이제 이만허면은 다리 전 놈도 다리 웃는 놈도 발 돋안 걸음 헐 것이 고, 눈 봉서도 눈 터그네(떠서) 걸음 헐 것이다. 너냥으로(너대로) 내려서 걸음 헐 것이다. 허니 너넨 기특허다.”

경해서 전부 풀러 노니까 살게 뗏노라고 해서 이놈덜도 거시기 헐 나올거 아니라? 나오는디 혼 멧 번 이제 가명(가면서) 보니까 내(川)가, 조랑내가 줄줄 허게 느리는(내리는) 내(川)가 이섯는디(있었는데) 막앙(막아서) 전너질 못허게 뗏었어. 그 내가 막앙 전너질 못허게 뗏는디,

“하! 이걸 이 났(내를) 어떻허영 넘으코!(어떻게 해서 전너리)”

이젠 한탄을 허다가 보니 물이 느려 가는디(내려 가는데) 뽕 금빛 님은 게 번 짝번 짝 허니 그 놈을 봉간보니(주워보니) 아너지 아너서(아닌게 아니라) 금인가 무신(무슨) 뽕을 봉가뱃단 말이며. 봉가내영 허니 이제 그 감천이가.

“야! 이제 우리 살게 됐다”고.

그 거시질 둘이 약속허영 우린 살게 됐었다고 이렇게 해노니까 아, 이젠 그 지성이란 놈이,

“자, 요걸 감천이가 요걸 봉가시니(주웠으니) 내가 요걸 배맛을 연구(研究) 해 보카?(연구를 해 볼까) 어떻 해 보카(어떻게 해 볼까)?”

호연 뜯(다른) 생각을 허엿단 말이어. 그러니까 이젠,

“이거 데껴불자(버리자).”고.

“데껴부리지 이걸 봉가그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데껴불자.”고 하니,

“아, 난 데끼지(버리지) 아니허겠다.” 하니,

“아니라.”고.

“이건 봉글제(주울제) 아니다.”고.

“던져불자.”고.

게서(그래서) 그놈을 다시 이젠 봐난(놓엿단), 그 봉가난 더레(주웠던 곳으로) 앓단 드리쳐 부러뜨단 말이어.⁶⁾ 드리치니까 아, 그 지성이란 놈이,

“에이, 이거 내부는(내버리는) 거니까 내가 봉가내야겠다.”고.

영해서 그걸 들러아산.⁷⁾ 들러아산 허니 이젠 감천이도 그냥 거기서 내분 걸로 핸 이젠 봉가 아산 허니까니,

“너는 봉가 앓고(주워 갖고), 나는 봉근 것을 내볼게 하시니까니 아, 우리가 이제 벗힐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해노니.

“아! 벗 못허민 말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민 너도 이제 걸음 발 하고(걸음을 걸을 수 있고) 나도 이제 걸음발 하니깐 뭐 관계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하니,

“아, 이젠 경 할 수 웃다.”고.

아, 경 허엿는디(그렇게 하엿는데) 얼마 안 가매 다시 노인이 나오는디,

“너 이눔덜!”

6) 가져다가 그 곳에 들이밀어 버리다.

7) 이렇게 해서 그걸 들어 안고는.

아, 영해서 호령해서 거시기 하니,

“너네덜 현 일이 뭐이나!”

“아명아명 했습니다.”

“꼭 바른대로 일러라.”

허니, 제가 현테로 ㄹ거(말하다) 아니라?

[조사자: 맞수다게.]

하라 하니까,

“지성이엔 현 놈이 순전히 나쁜 놈이다. ㄹ찌(같이) 벗허영 멍기꼭(다니고) ㄹ찌 살아난 놈이 그런 이제 거시기만 이시난 널 ㄹ른 놈은 죽어야 뉘다.”고.

그래서 이제 못살게 굴어 부렀다고 허여.

[조사자: 아, 예-]

저니(그러니), 요새 거 조금허민 「지성이민 감천이다」고 해서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님도 이제 감동한다고 이렇게 하는디 거, 지성이나 감천이나 거 사람이라 난 거라.”⁸⁾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한동리, 김근호, 남, 82세)

7. 양태장수

어떤 장님 하니 이신디(있는데) 불량현 짓을 해서. 불량현 짓을.

아, 혼 놈이 이제 여자 조들름꼭(귀찮게 굴고) 허다가 뉘 장사현다고 해서 이젠 뉘 양텐(갓양태)가 뉘 풀래(팔러) 간다고 해서. 양태장사 현다고 해서. 양태장사를.

아, 그걸 문딱(모두) 그 여자안티 할러부렀단 말이여.¹⁾ 할러부런 뉘 돌아오젠 허난 뉘 돈 혼꾼이 이선(있어서) 돌아와질꺼라. 그디서(그곳에서) 이제 어디강(가서) 굶어 죽게 뉘 낫거든. 굶어 죽게 뉘워서.

8) 지성이나 감천이나 본래는 사람이었다.

1) 여자안테 흘려서 빼앗겨 버리다.

하니, 하! 생각하니 어이가 웃거든. 어이가 어시니(없으니) 이젠 내 본전(本錢)은 뭐이나고 훌쩍 마트면(할 것 같으면) 장사 현 본전은 아무것도 하나도 흔 것이 웃고 집일 돌아가지 못하게 뉘니 고약하다고.

하니,

“에이, 이놈의 이제 여잘 간 거시기²⁾ 해야 뉘겠다.”고.

“너 이제 본전이나 날 뉘와(돌려) 달라.”고.

“나 이제 배로 하나(가득) 양태 시전(신고) 온 것도 다 관나부난(파손되어 버리니, 적자나니) 집이(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뉘으니까니 차빌 당해주든지 날 맥영 재와 주든지 허라.”³⁾고 하니,

“제진 경 허라(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내 본전 뱃기(벗기)기⁴⁾ 어렵지 안하다.”고 해서 옹게로 춤 경 하니, 경하니 아, 이놈이 이젠 더 해 볼 말이 웃엇거든.

뭐 이젠 맥여 달라, 재와 달라 헐 수도 웃고(없고) 뭐 더 해 볼 말이 웃는다, 하니 뭐 이 사름도 거시기 현 사름이라.

“에이, 빌어먹을. 방이나 하나 써부쳐 뉘(두고) 가자.”고.

그래서 방을 써 부치는디 그 옹게로 그 여인 형체(形體)를 이제 말해서 ‘원견(遠見)하니 사마목(死馬目)이요, 근시(近視)하니 파두창(破痘腸)이라.’ ‘멀리 보니까 죽은 물(馬) 눈 마트고(갈고), 가까이 보니까 큰 허물 찬 것(뉘 것) 마트다.”고.

이것이 일로써(이것으로 해서) 나 이제 거시기라고 해서 방 써 부쳐 뉘 그냥 돌아 오더라 허여.

[조사자:아! 예]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한동리, 김근호, 남, 82세)

2) 말이 잘 생각나지 않을때 무의미하게 쓰이는 허사(虛詞).

3) 나를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던지 하라.

4) 여기서 ‘벗기다’는 ‘본전을 도로 찾다’의 뜻.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指導補助 高 光 敏
班 員 李 正 勳(3)
金 順 姬(3)
安 由 美(2)

目 次

- I. 概 觀 IV. 巫俗信仰
II. 公認宗教 V. 個人信仰
III. 部落信仰

I. 概 觀

제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40여 분 달리면 만장굴로 들어가는 길목이 보인다. 다시 일주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3킬로미터쯤 가면 모래밭 위에 앉아 있는 연대봉이 있다. 이 산에 올라 바다쪽을 향하로 바로 밑으로 내려다보면 용기종기 모여사는 마을이 하나 있다.

호수 350戶이고 人口 1천 7백여 명이 한데 어우러 모든살이를 하고 있는 이 마을은 처음에는 어등포(魚燈浦), 또는 어등리(魚燈里)라 불리다가 그 어감이 그리 밝지 못하다고 하여 오늘날의 행원(杏源)으로 바뀌었다.

이 마을은 특히 個人이 갖고 있는 경지면적이 적으며 모래밭이 많고 빌레가 많아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목동조적이 잘되어 목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이러한 험한 밭과 바다를 일구며 살아야 했던 이 마을 사람들은 토속적인 민간신앙에 깊게 뿌리박고 있으며 다른 공인종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Ⅱ. 公認宗教

현재 행원리는 公認宗教로서 장로회 1개가 있을 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수호해 주거나 관장하는 神들을 모시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그 神들의 상주처인 당(堂)에 대한 믿음이 매우 깊으며 다른 마을 堂보다도 그 神이 靈驗이 세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 공인종교에는 아직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을 장로회에 다니는 가구수가 5가구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基督教

1) 名稱: 대한 예수교 장로회

2) 宗派: 예수교 장로회로서 통합측에 속한다.

3) 沿革: 1950년 11월 25일 김녕리에서 분립하였다. 처음에는 장군학집사 개인집에서 3여 년간 모여 오다가 1953년 3월 15일 행원리 615번지에 교회를 지어 옮겼다.

4) 教會施設: 1975년 행원 610번지에 대지 88평 가옥 2동을 건축하였고, 운영은 자체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인의 헌금과 중·고등부학생회의 보조를 얻고 있다.

5) 信徒: 유능한 지도자가 없고 또 지도자들이 육지부에서 내려와 잠깐 있다가 돌아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남녀신자 15명(5가구)이며 국민학생 25명, 중·고등학생 30여 명 정도 뿐이다.

6) 事業: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사업은 벌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다면 침체된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전도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선도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며 학생들을 통해서 좀더 깨끗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Ⅲ. 部落信仰

1) 祭名: 포제라고 하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라 하여 天祭, 天神祭라

고도 한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제를 지냈다 하여 동포제 갯포제라 하였다.

2) 神祭 : 天神, 醜神, 海神 3神位이다.

天神은 마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神이고, 醜神은 農作物을 관장하는 神이며, 海神은 바다를 관장하는 神이다.

3) 祭日 : 每年 陰曆 정월 丁日과 亥日 중 하루를 택하여 子時에 祭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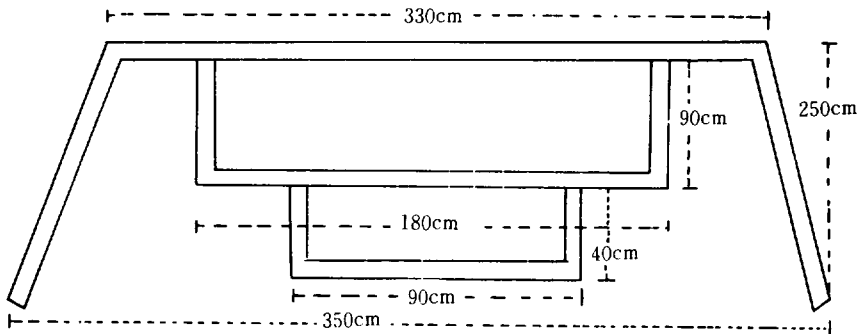
4) 祭場 :

① 명칭 : 포제단

② 위치 : 원래는 산쪽에 있었으나 해신제와 포제를 겸하여 지내게 되면서부터 바닷가 근처로 옮겼다고 한다.

③ 형태 : 다음 그림 참조

〈그림1-1〉 醜祭壇形態圖



5) 祭儀管理

① 회소집 : 음력 12월 20일쯤 마을회의에서 제관 및 祭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다.

② 경비모금 :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으며 요즘은 마을 공동자금 즉 양식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보관 : 모든 祭儀에 필요한 축문, 제복, 제물, 식기 등은 이장집에 보관한다.

6) 祭官 : 제관은 원래 12인이었는데, 요즘은 8祭官으로 줄여 行祭하고 있다.



포 젓 단

① 자격 : 그 마을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50대를 전후한 사람이거나 하며 특히 초헌관은 나이가 70세쯤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집안이 넉넉하여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뽑는다.

② 선출 : 마을 회의에서 선출하며 동네마다 골고루 선출한다. 祭官은 매년 바뀌며 유능하면 연임할 수도 있다.

③ 祭官의 종류

初獻官 : 첫째 헌관

亞獻官 : 둘째 헌관

終獻官 : 막내 헌관

執禮 : 禮를 주장하는 사람(사회자)

大祝 : 祝文을 읽고 祭를 집서함

謁者 : 行祭할 때 獻官을 인도하는 사람

贊者 : 執禮가 부르는 흥기에 보조역할로 「興」을 부르는 사람

典祀官 : 祭物の 준비, 陳設 등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

④ 立祭 : 제관이 결정되면 포제청을 결정하여 祭日前 5일동안 제관들만

합숙을 하게 된다. 포제청은 祭壇에서 가깝고 깨끗한 집을 고르고 여자들의 출입을 금한다.

음식에 있어서도 不淨한 음식,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은 먹지 않으며 제관이 不淨하면 제를 연기하거나 제관을 새로 뽑는다. 그리고 제관들은 3일동안 상물에 깨끗하게 몸을 씻으며 마을에서 누가 해산하거나 초상이 나면 祭는 연기된다.

옛날 김 채호씨가 초헌이었을 때 추운 물에 목욕하고 나오다가 돌에 다쳐 피를 보였는데 모른 채 묻어두고 제를 지냈다가 나중에 병이 나서 고통을 받았다 한다. 그리고 강원택(85세)씨는 제관 심부름꾼인 謁者를 시켰더니 일부러 피를 보여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후에 3년을 병으로 고생하였다 한다.

7) 祭服 : 祭官의 祭服은 “과지”라고 하여 왜정시대부터 입었다고 하며, 색깔은 검정색 천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모자는 유건을 쓰고 신발은 보통 신발을 신는다.

8) 祭物

① 메는 稻, 梁, 黍, 稷, 4가지를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쌀에 두 그릇, 좁쌀에 두 그릇을 올린다.

② 犧牲 : 돼지 1마리

③ 幣帛 : 시라목, 백지

④ 果類 : 五果를 쓴다. 대추, 꽃감, 밤, 유자, 배 등

⑤ 祭酒 : 甘酒(醴酒)를 使用한다.

⑥ 脯 : 포류, 건어, 명태

⑦ 菁芹 : 미나리채, 무우채, 산나물

9) 行祭 : 제사와 비슷하며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한다. 笏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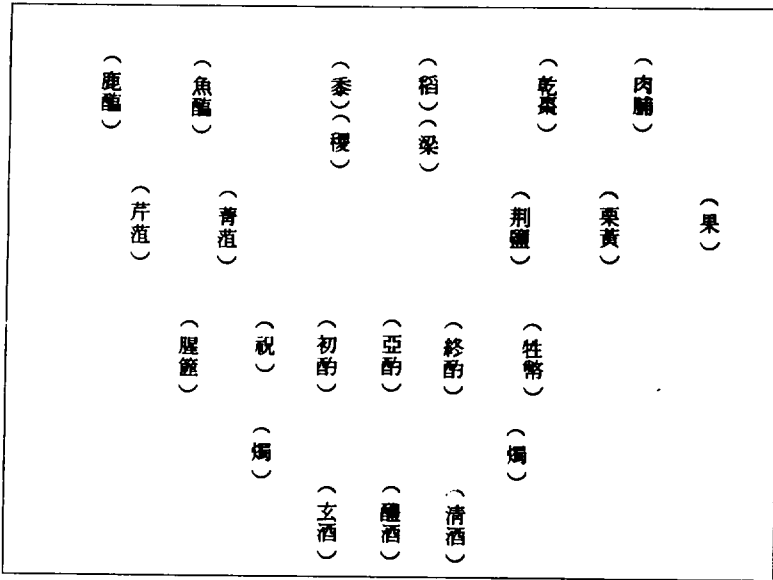
祭 順

祝及諸執事 入就拜位 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因詣 盥洗位 盥手 各就位
謁者引 三獻官 入就拜位 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謁者進獻官之左 白有司 謹
具請行事 謁者引 初獻官詣 盥洗位 盥手 因詣 神位前跪 三上香 獻幣 小退
俯伏 興平身 因降復位 謁者引 初獻官詣 因詣 樽所 西向位 舉匱 洗酌 酌

酒 因詣 神位前跪 獻酌 獻祝 小退俯伏 讀祝 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 亞
 獻官詣 因詣 盥洗位 盥手 因詣 樽所 西向立 洗酌 酌酒 因詣 神位前跪 獻酌 小
 退俯伏 興平身 因降復位 謁者引 終獻官詣 因詣 盥洗位 盥手 因詣 樽所 西
 向立 洗酌 酌酒 因詣 神位前跪 獻酌 小退俯伏 興平身 因降復位 三獻官 皆
 四拜 鞠躬拜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詣 因詣 神位前跪 執事者 以酌 授獻官
 獻官 受酌 飲卒酌 撤盞 興平身 因降復位 三獻官 及諸位者 皆四拜 鞠躬
 拜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詣 因詣 望瘞位 焚祇祝 禮畢 初獻官以下次出門
 (終)

10) 陳設：다음과 같다.

〈그림1-2〉



11) 祝文: 祝文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장집에 보관한다. 醮神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干支 云云 敢昭告于

醮神之靈 伏以 於赫明神 司我里域 大哉其位 盛矣其德 每到歲首 設享誠力 昭明在上 造化莫測 願爾蒼生 仰望恩德 攸靈攸司 顧視民族 衣我粒我 莫匪其極 燭動和氣 獲拔疾厄 雨順風調 三農洽足 豐登五穀 蕃息六畜 海女採業 物產麗錯 鱈魚其類 如崗捉得 順風駕帆 商財利益 千災水釋 百福雲作 日吉辰良 陳此菲薄 若是保佑 報賽無歇 俾我一鄉 終歲安樂 謹以牲幣 脯醢菜果 醴齋乘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12) 豫兆: 行祭中이나 後에 말이나 쟁의 울음소리가 들리면吉하고 소울음소리가 나면凶하다고 한다.

13) 飲福: 제를 지낸 후 음식은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祭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IV. 巫俗信仰

堂儀禮

이 마을에는 본향신이 있고 그 神들의 상주처인 堂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본향당을 바다 윗쪽에 있다고 해서 옷당 이라고 부른다. 神의 내력담이라고 할 수 있는 본풀이는 전해지지 않고 그 이름만이 전해져서 男神인 나주판관과 女神인 궁전요왕대부인이 있다.

이 두 神은 부부로서 늘 당집에 상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호적, 출산, 사망, 생업 등 생활전반을 관장하며 수호해 준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어부와 해녀들의 생업을 수호해 주는 神이 넷이나 있다. 부부관계의 神인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 큰도안전, 큰도부인, 중의대사이다. 이 神들은 포구안으로 드나드는 어선, 그리고 해녀, 어장 등 어업과 관계된 모든 것을 관장하며 모두 이 마을 해변가 속칭 “남당”이라고 하는 곳에 돌담을

쌓아 마련한 堂안에 좌정해 있다.

그 堂안에는 석단을 만들어 제단을 삼았는데 중의대사라는 神만은 따로 좌정해 있다. 왜냐하면 다른 神들은 모두 부정한 음식 곧 돼지고기를 싫어하지만 중의대사만은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신앙민들로부터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생업수호신으로는 이 외에도 목축과 관련된 神이 있고, 그 神들의 상주처인 堂이 있는데, 神의 이름은 쇠(牛)할으방, 쇠(牛)할망이라 한다. 이 신들은 이 마을 동구밖 속칭 “당머세”라고 하는 곳에 좌정해 있다.

이 다음에는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이 있는데 하나는 이 마을 출산을 돕는 조산신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의 질병, 특히 피부병의 치유를 관장하는 질병수호신이다. 조산신은 이 마을 섯동네 해변 속칭 “신영물”이라고 하는, 늘물이 솟아 흐르는 구멍에 좌정해 있다고 믿는 神이다.

이 마을에 좌정해 있는 열 한 位의 神들을 위한 祭儀는 그 기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첫째는 마을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날에 공동으로 제를 올



아 랫 당

리는 정기적 祭儀이고, 둘째는 마을 신앙민들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堂으로 찾아가 제를 올리는 부정기적 祭儀이다.

정기적 祭儀에는 첫째 정월 초하룻날 웃당에서 “뺨매단속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변순력신과세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러가지 기(旗)들을 단속하는 간단한 祭儀다.

둘째는 정월 2~4일에 웃당을 중심으로 마을 전역에서 “대변순력신과세제”가 있다. 이 의례는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 수호해 주는 본향신의 상징물인 당기를 비롯한 여러 기들이 마을 여기저기로 옮겨지면서 신앙민들로부터 신과세를 받고 또 신앙민들에게 1년의 운수를 점쳐 주는 곳이다.

여기에서 심방은 굿의 첫머리인 초감제를 비롯하여 그 동네동장, 반장, 그리고 상단골 순으로 모든 동네 사람들의 열명(列名)을 노래로 올려 본향신에게 축원한다. 그리고나서 여러 단골들이 본향신에게 세배도 올린다. 맨 나중에는 신앙민들 각자 계절별로 1년 운수의 모든 것을 점받고 또 동네의 운수도 받는다. 그리고나면 한 동네의 “대변순력신과세제”는 모두 끝나고 이내 굿소리를 울리며 다른 동네로 향한다. 이를 “순력친나”고 한다. 이와 같은 “대변순력신과세제”는 이 마을 여섯 동네에서 행해진다.

세째는 정월 14일에 웃당을 중심으로 “뽕부림대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마을 사람들 1년 삶의 모든 것을 본향신에게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올려지는 祭儀로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① 초감제 : 굿의 첫머리로서 당곳에 모셔질 여러 신들에게 굿을 하는 장소와 날짜 그리고 굿을 올리게 되는 연유등을 알린다.

② 예명올림 : 여러 단골들 순으로 모든 참석자들의 명단을 축원하는 제차다.

③ 본향듬 : 본향이란 마을 사람들의 생사와 호적 곧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 일체를 관장하는 마을 본향신이고, 듚이란 그 신을 모셔들임 곧 본향신을 굿판으로 현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군문열림 : 본격적인 “군문열림”에 들어가기 앞서 “베포도업침”과 “날과 국섬김” 그리고 이 당곳을 올리게 된 사연인 “연유담음”등 초감제 때의 주사설 내용을 한번 더 간단히 창해두고 나서 본격적인 “군문열림”이라는 상징적 행위가 시작된다. 수심방은 요란한 무악에 맞춰 신계의 문을 돌아보는 상징적인 춤을

추고 나서 무점으로 문열림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여러 신앙민들에게 전한다.

⑤ 자손들 절 시키고 소지 사름: 본향신이 굿관으로 왔으니 마을 이장을 비롯한 삼헌관이 마을을 대표하여 주찬과 역가상을 올린다.

⑥ 도산반음: 마을 전체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점으로 그 神意를 알아 보는 제차다.

⑦ 각산반음: 1년간 마을 공동의 운수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여러 신앙민들마다 한해의 운수를 계절별로 각자가 알아본다.

⑧ 철변: 제상의 제물을 모두 내려놓고 제물을 조금씩 따서 일정한 구멍에 담아 버린다.

네째는 정월 보름날 알당을 중심으로 “요왕황제국대제”가 있다.

이것은 바다의 세계를 관장하는 용왕신들을 비롯한 이 마을에 늘 좌절해 있는 어업 수호신들에게 이 마을 신앙민들의 1년의 풍동과 평안을 빌고 운수를 점쳐 보는 것으로 “영등굿”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는 7월 14일 웃당에서 “백종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마증식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이다.

여섯째는 8월 14일 웃당에서 “추석제”가 있다. 이것은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곱째는 10월 15일 알당을 중심으로 “대제(大祭)”가 있다. 이것은 마을의 모든 공동수호신들을 청해다가 기원을 하는 祭儀로서,

초감제→예명올림→신청해들이기→도산반음→지드림→각산반음→만관 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덟째는 설달 그믐날 웃당에서 “개탁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하는 본향신에게 온 마을의 1년을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제이다.

이렇게 정기적인 당의례는 8가지로 나누어 행해지고 있다.

부정기적인 당의례는 어린이들의 질병 수호신인 “오분작할망”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당의례가 있고 목축수호신을 위한 당의례가 있다.

이렇게 부정기적인 당의례는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V. 個人信仰

1. 土神祭

1) 祭名：土神祭

2) 祭神：土地之神位

3) 祭日：正月에 가족의 복덕에 맞게 택일하여 지내며 3년에 한 번씩 지낸다.

4) 祭場：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 울타리 안의 청결한 뒷뜰에 제단을 마련하여 지낸다.

5) 祭官：집안이 어른이나 혹은 나이 많고 유식한 남자가 제관이 되며 3일 정성을 한다.

6) 祭物：메(쌀, 조), 명태, 오과(五果), 닭

7) 行祭：일반 祭儀와 비슷하며 축문은 매년마다 써서 올린다.

이 밖에도 조왕제, 기우제, 해신제 등이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으며,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다면 안칠성, 밭칠성을 모시는 집이 있다. 그래서 안칠성 및 밭칠성을 제주도에서 모시게 된 유래를 조사해 보았다.

2. 안칠성, 밭칠성의 유래

칠성뱀은 강남 위영산골에서 나왔다. 장씨성과 송씨성을 가진 집안에서 하늘의 복두칠성 별자리를 모시다가 그 칠성의 정기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7살 되던 해 아버지 어머니가 벼슬을 하러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자아이를 데려 갈 수가 없어서 그 집 종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밥 잘해 주고 하면서 키우고 있으면 벼슬을 마치고 돌아와서 종문서를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나는데, 그 애기는 그 어머니의 말을 밖에서 다 듣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따라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애기는 밤낮 울고 다니는데, 그때 마침 중이 그 애기를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밤에 데려놓고 낮에는 업고하면서 키웠다.

한편, 그 집 중은 애기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부모가 돌아와서 애기씨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중이 지나갔다. 그 집 어머니는 중에게 ‘우리애기 어디 있는지 점이나 쳐줍서’하고 부탁하니 그 중이 하는 말이 “부르면 들을 만하고 외치면 들을 만한 곳에 있다” 하여 찾아 보니 울래(대문)에 있는 ‘물광돌’(옛날에 대감들이 말을 타고 내릴때 편하게끔 하셔 만들어 놓은 돌)아래에 있었다.

자세히 가서 살펴 보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은 뱀의 몸이라. 배도 새끼를 배어 불룩하니 영락없는 뱀의 모습이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양반의 집에서 사람을 죽이면 양반체면이 안서니까 무죄석함에 담아서 띄워 보내기로 하고 바다에 띄웠는데, 강남에서 차차 흘러 흘러 제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마을마다 당(堂)이 있어 정의에 광정당, 대정가면 광인당, 목안 가면 2시락당, 돌의당등 당에 들려고 해서 제주 400리 길을 전부 다녀도 당(堂)한집이 무서워서 들지 못하고 김녕으로 들어서려는데 바당절(과도)에 밀려 “취애기통”에 들었는데 일곱 해녀가 물에 들어 가다가 그 무죄석함을 발견하고 보물인 줄 알고 서로 자기가 먼저 보았다’고 싸우고 있었다. 이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싸우느냐고 묻자 해녀들은 사실을 말하자,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 무죄석함을 깨어 보아서 그 속에 금이나 은이 있으면 일곱 해녀가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는 그 함을 달라고 하니, 좋다고 하여 깨어보니 뱀 일곱마리가 와망와망 모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서로들 질겁하여 달아나 물에 들어 물질을 하는데 물이 어두어 물질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두 아파서 죽어갔다. 그래서 점을 치니 점장이 하는 말이 “남의 나라 칠성한집을 박대한 죄”이니 그 바닷가로 가서 칠성한집님 잘못하였습니다 하면서 빌고 칠성맞이 곳을 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무죄석함을 발견한 곳으로 가서 곳을 하였다. 그랬더니 어름산에 구름녹듯 병이 깨끗이 좋았다. 그 후 해녀들은 바닷가에 들어가면 큰전복, 큰소라등 망시리 가득 잡을 수가 있었다.

한편 뱀 일곱마리즉 어머니와 딸 여섯 형제는 칠성맞이로 인해 잘 얻어먹었으니 이제는 제주시로 구경을 가자 하고는 한라산 영산가서 실컷 구경하고 다음은 제주시내 가서 고운사람도 많으니 구경거리가 많을 것이다 하고는 고운 새옷으로 갈아입고 제주성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데 동문, 서문지기 세어서 못 들어오고 남문, 북문 역시 세어서 못 들어오니 산지물쪽으로 해서 물내리는 구멍으로

제주성에 들어 왔는데, 지금 제주시 칠성골은 뱀 일곱마리가 처음 들어오니까 칠성골이라 하고, 그 곳을 통해서 배부른 동산에 와서 쉬면서 향교 상천 구경하고 배고프니 다시 산지물에 가서 빨래팡에 엽전 일곱개짜로 변색을 하여 들어누워 있었다.

마침 그때 송침지 딸이 아침 일찍 물을 길러 갔다가 그 엽전 꾸러미를 보고 기뻐서 물을 길고 엽전 꾸러미를 치마통에 담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워 왔다고 하며 치마통을 보이니 돈이 아니고 뱀 7마리가 와망와망 하니 어머니가 쌀 한줌을 던져주면서(치마통을 벌리며) 우리 조상이거든 이 치마통으로 들어오고 남의 조상이거든 온 길로 되돌아 갑서 하니 그 뱀들이 쌀을 먹으며 치마통으로 들어오니 그 뱀을 들고 고향에 들어가 통쾌(항아리)에 넣으면서 “먹을 년도 나습서 입을 년도 나습서” 하며 거기에 넣었는데 그것이 안칠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마리도 각자 과수원에 과일을 풍부하게 하는 등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칠성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걱정없이 풍부하게 해주고 뱃칠성은 자손번창 및 수명을 길게 해준다. 따라서 문 달리면 문전이요 솔 앉으면 조왕이며 쌀통 놓으면 안칠성이 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뱀을 무시할 수가 없다.

分科別 發表要旨

〈語學分科〉

배우고 그리고 쓰자

한글의 정확한 뜻풀이와 함께 올바른 언어의 사용과 한글 사용을 권장하고, 번람하고 있는 외래어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자는 목적아래, 잘못 쓰이는 언어와 우리말을 조사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잘못 쓰이고 있는 언어로는 一切와 言語道斷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다.

본래의 뜻을 잃고 쓰임이 잘못된 言語였다. 一切은 “일체”와 “일절”로 읽는다. “일체”로 읽고 표기해야 할 곳에 대부분이 “일절”로 쓰이고 있었다. 일체는 “모든 것, 온갖 것”의 뜻이고, 일절은 “아주, 조금”의 뜻으로서 사물을 부인 또는 금지할 때 쓰인다.

言語道斷은 “말로써 말할 길이 끊어진다”는 뜻으로서 “아주 깊은 불교의 진리” 혹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대중들은 “뜻을 왜곡해서 쓰는 말”이라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그 쓰임이 원뜻을 잃고, 그릇되게 쓰이는 언어들이 많았다. 하루에 쓰는 단어의 수를 보고 그 사람의 지식여부를 판단하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것을 지키자는 의욕을 가지고서 조사, 발표한 우리의 말을 몇개만 소개하여 보면,

- 함함하다 : 털이 보드랍고 윤이나다.
- 해살 : 짓궂게 행동하는 것.
- 지정거리다 : 가다가 조금 지체하다.
- 되술래 잡다 :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나무라다.
- 발다 : 시간, 공간이 매우 가깝다.

- 왕칭대다 : 차이가 엄청나다.
- 안값음 : 아버지의 은혜를 값음.
- 감장 : 계 힘으로 혼자 꾸리어 감.
- 겪이 : 음식을 차려서 남을 대접하는 일.
- 똥겨주다 : 모르는 것을 일러 깨닫게 해준다.
- 수제 비태꺼 : 버릇없이 어른에게 덤비는 말다툼.

이 외에도 많은 우리의 말과 글을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참신한 우리말의 창조와 발전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 원형 밝혀 적기의 한계

맞춤법이란 말소리를 어떠한 글자로 어떻게 모아 맞추는가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3원칙은

첫째,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둘째,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세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뒷말에 붙여 쓴다.

첫째 원칙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우리들이 말하는 말소리대로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는 뜻이 있으나, 이것은 언문일치를 뜻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맞춤법 2항에는, 한 형태소 안의 두 홑소리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것이 약간 길어져서 앞소리의 받침을 겸한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나, 한 음소이기 때문에 한 된소리 글자를 첫소리로 적는다고 하였다 (예 : 드끼, 어깨, 바쁘다, 오빠). 그러나 달음소리 다음에서는 약한 소리도 된소리로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둘째 음절의 소리를 약한 소리로 적더라도 무방하게 하였다 (예 : 국기, 옷상자, 맛잔, 색시) 요컨대, 한글의 받침은 반드시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발음의 결과는 거의 같으나, 받침의 차이로 전혀 다른 말이 되는 예는 많다 (예 : 날, 낫, 낮, 낮, 날).

맞춤법의 둘째 원칙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힌다는 것이다. 원형이란 기본 형

태를 말함인데, 그 원형을 밝힌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뜻한다. 하나는 한 형태소가 여러 변이 형태로 바뀌어 실현되더라도 그 기본형을 적는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형태소의 경계가 글자에 분명해지도록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원형 밝히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변동에 의해 형태소의 끝바꿈이 일어나는 경우 그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정 필연적 변동의 경우는 일정한 범위안의 형태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 형태소에 어떠한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에 그 규칙을 적용할 지 모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임의적인 변동의 경우에는 표준발음이 원형만을 인정하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고, 두쪽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두가지 표기법을 모두 인정한다.

2회의 발표회를 가지면서 미약함을 느끼며 다음 발표회 때에는 좀더 열심히 조사, 공부하고 발표를 하고자 한다.

어학분과에 속해있는 학형은 1학년 3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4학년 2명으로서 전체의 학형수에 비해 몇명 되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나갈 것이다.

吳圭原 詩研究

I

詩人 吳圭原에게 있어서 讀者들이 그와 동체될 수 있는 要素는 그의 表現樣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內容이 形式에 비해 형편없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물론 아니된다. 그것은 그의 意識世界, 즉 그가 發表한 대부분의 글들에서 日常的이면서도 심층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럴싸한 技巧을 부리는 일이 없다. 日常을 的確한 直觀으로 洞察하고, 우리가 한번 보고 쉽게 넘겨버릴 일들과 전혀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면까지 意識하면서 日常的인 言語로 獨特한 外樣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言語에 새로운 秩序를 부여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小宇宙를 創出해 내고 있다 하겠다.

自由詩와 散文詩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는 反復과 그에 연유한 強調, 그리고 緩曲法과 아이러니, 패러독스를 통한 表現으로 그의 詩世界를 구축해 놓고 있다. 本稿에서는 그의 表現樣相 중 反復에 의한 것을 中心으로 검토하되 그 反復修辭에서의 機智와 奇想의 使用까지 검토하려 한다.

II

平易한 日常語로 平易한 外樣을 보이면서도 그의 詩들이 보다 깊이 있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吳圭原에게서 平易한 外樣은 일단 外樣으로서의 意味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모든 日常用語나 심지어 專門用語까지도 一次的으로는 詩語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실상 그러한 用語들이 詩語로서의 쓰임은 詩人の 能力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詩的 감수성이 예민하며, 事物에 대한 洞察力과 直觀力이 남과는 다른 詩人이다.

그의 表現樣式으로서의 하나가 모더니즘이나 超現實主義의 特性이라 볼 수 있는 '기존언어의 파괴작업'을 통한 데포르마시옹(變型)이라는 形式으로 나타

나는 것이다. 이러 變型은 體質에 맞게 體系化가 되단. 즉, 體質化가 된 이러한 樣式은 反復을 中心으로 展開되는데, 그 反復樣相은 解辭의 이 面으로, 더는 虛辭의 面으로 나타난다.

1) 解辭의 面

言語의 秩序를 새로이 부여하는 이 解辭의 表現方式은 狀況(事物)의 本質을 정확히 把握하려는 方法論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詩의 文體, 즉 압축적이며 긴장 있는 文體를 배제해 버리고 대신에 그는 거기에다 나름대로의 言語를 도입한다. 그리고 도입한 그러한 어휘들이 그의 獨特한 文法構造에 배치되는 것이다.

정말로 나는 한 女子를 사랑했네. 女子만을 가진 女子, 女子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안 가진 女子, 女子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女子, 눈물같은 女子, 슬픔같은 女子, 病身같은 女子, 詩集같은 女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女子, 그래서 불행한 女子.

-〈한 잎의 女子〉中.

〈한 잎의 女子〉라는 作品에서와 같이 그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솜씨에서 사뭇 유별나다. 우리 주변에서 여자란 말처럼 혼한 말 또한 없을 것이다. 혼한 만큼 신기로운 것 하나 없고, 흥미없는 보통명사 중의 하나이다. 이렇듯 가장 日常的인 말에서 산만하게 흩어져 너절한 여자의 단편들을 그러모은 것 뿐이다. 이것은 긴축, 혹은 압축과는 반대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격이다.

그의 詩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일면은 解辭의 面 동시에 機智에 차 있다는 점이다.

천우사 약방 앞길

여자 배추장수 돈주머니로 찾아드는 비

땅콩장수 여자 젓가슴으로 찾아드는 비

사과장수 남자 가랭이로 찾아드는 비

그러나 슬라브 지붕 밑의 시간은 못 적시고

슬라브 지붕 페인트만 적시는 비

서울特別市 開峰洞으로 편입되지 못한

京畿道 始興郡 西面 光明里的 실록거리는 입술 언저리에 붙어 있는

잡풀의 몸 몇개만 버려놓는 비

-〈개봉洞의 비〉 全文

여기서 그는 되풀이하여 비로서 作品을 엮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잎의 女子〉와 이 작품은 大同小異하지만, 이 作品에서는 곧 機智와 奇想의 使用으로 〈한 잎의 女子〉와는 두드러진 差異를 나타낸다.

〈슬라브 지붕 밑의 시간은 못 적시고/슬라브 지붕 페인트만 적시는 비〉라든가, 시가지 변두리의 공지에 아무렇게나 솟아있는 풀포기에도 내린다는 비는 그의 기지나 기상의 일례이다.

2) 虛辭的인 面

자칫 잘못하면 ‘헛소리’ 혹은 ‘말장난’이 되어 버리기 쉬운 同語反復의 表現方式으로 虛辭的인 表現樣式이 있다. 吳圭原에게서도 이러한 면을 다분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만은 ‘헛소리’나 ‘말장난’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和解와 和合의 條件를 갖추고 있는 덕택이 아닌가 한다.

어둠은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

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둠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

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둠다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둠다〉 中.

제목에서만도 〈자세히 봐도 역시〉라는 삽입구만 빼면 〈어둠은 어둠다〉가 된다. 그것은 常識的인 것 이전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자세히 봐도 역시〉라는 삽입구를 써서 〈어둠이 어둠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하지 않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그 뜻을 強調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그 표현을 어색하지 않게 하였을지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말장난을 한다고 욕할 것임이 틀림없

다. 그도 그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고 노래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화해양식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수량화, 물량화, 추상화 時代의 虛實을 이런 表現方式을 빌어 드러내려 한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라고 노래하고, 실질명사인 화려할 것임에도 틀림없는 <꽃>도, 추상명사로서 전혀 明暗에 區別이 없는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심지어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노래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의 어둠은 밤의 도래로 해서 어두워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해도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라>라는 귀절에서 그 어둠이 단순한 밤의 도래로부터의 어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둠의 정체는 무엇인가, 태양까지도 어둡게 한 그 어둠의 정체?

日常 어느 곳엔가 도사리고 있는 時代의 어둠은 아닐까. 일상에 대한 的確한 直觀力과 洞察力을 지닌 詩人의 눈에는 그 정체가 보였음직도 하다.

III

이상에서 詩人의 表現樣相 중 反復을 中心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그는 마르시 않는 샘인 듯하다. 물을 퍼올려도 여전히 물은 예전만큼 남아 있는 느낌이 다. 그는 그의 反服修辭를 통해 자신의 想像力을 굳게 신뢰하게 된다. 그 만큼 자신의 想像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詩人이기도 하다.

結論으로 解辭的인 表現을 통해 그의 機智와 함께 그는 狀況(事物)의 本質을 把握하려고 했고, 虛辭的인 表現을 통해서도 時代 일면을 관찰하고 時代와 의 화합의 장(場)을 마련하려 했다.

李箱 ‘날개’의 의식흐름

李箱의 作品中 「날개」에 關하여 發表한 論文 《李箱 “날개”의 意識흐름》의 要旨을 畧한다면, 李箱의 小説에 나타나는 意識의 흐름, 內的 獨白과 解剖, 수필 예로의 접근 따위는 人間內面生活로 되고 들어가 內面의 드라마를 分析하고 提示하려는 熟考된 노력의 結果로 본다. 따라서, <날개>라는 作品속에 內面化되어 있는 無意識을 強烈한 自意識으로 表出하였다는 데에 촛점을 두어 意識 흐름의 過程을 (1) 外部的 影響, (2) 自意識의 要因, (3) 外出로 통해 本 意識 圖出 로 살펴 보았다. 細分하여 說明하면,

(1) 外部的 影響에 있어서는 그가 死亡하기 바로 前 해에 (36년 9월) 發表된 작품으로, 李箱의 異性關係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文學的인 背景을 살펴 보았다. 즉 妓生 錦紅을 알게 되었다는 <날개>와 또 다른 作品인 <逢別記>에서 모델이 되어 <날개>의 內面化되어 있는 葛藤은 흡사 錦紅과의 關係를 하나의 作品으로 表面化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즉 李箱을 어린애 다루는 듯한 것이라든지, 李箱이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順從하는 태도를 취한 行爲, 李箱을 虐待하고 錦紅 자신이 외박을 자주한 行爲는 作品속에 잘 反映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作家的 意圖는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의 性格理論에 의하면, 의존하고 싶은 욕심· 공격성· 분노· 性에 대한 欲求 등도 이드(Id)에 속하며, 이드(Id)의 충동은 自我의 힘이 弱화되었을 때는 意識世界의 公象이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날개>는 異性關係에서 비롯되어 作品 序頭에 나와 있듯이 女人에 의존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별에 대한 憤怒로 逆說的인 自意識의 발로로 보았고,

(2) 自意識의 要因으로 이것은 作品의 序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날개>는 序頭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설本문으로 이루어진 作品으로 序頭에 나타난 作家的 意識이 무엇이었던가를 把握해 봄으로써 作品 전체에 內在하고 있는 意味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序頭에 <剝製가 되어버린 天才를 아시오?>에서 剝製가 되어버린 天才

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의 自己 虐待的인 發言임에 틀림없다.

天才의 表皮化는 장식물로서의 효과밖에 없는 그런 人間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作家의 意識·心情을 吐露한 것으로 감금된 自我意識의 表出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본문에서 <날개야 다시 돌아라.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로 終結되고 있어서 序頭에 나타난 파라독스(paradox)적인 暗示가 昇華되어 劇的인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序頭에 剝製되어 버린 天才와 같이 幽閉되어 버린 생명에 대한 覺醒과 끊임없는 自我意識으로 작품 전체에 나타날 이미지를 形成하고 있다 하겠다.

(3) 外出로 통해 본 意識圖出에서는 주인공 <나>가 閉鎖되고 監禁된 空間의 생활 속에서 外出은 하나의 새로운 자신의 存在를 깨닫는 돌파구였는지 모른다. 작품속에서 <나>의 外出은 4회에 걸친 外出과 마지막 5회째 脫出로 이어지는데 外出過程에서 <나>의 意識이 어떻게 변모하여 가고 있는지 살펴 보면, 첫 번째 外出에서는 <아내>의 私生活를 認識하게 되고, 두 번째 外出에서는 快感을 느낌으로써 自我에 접근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세 번째 外出에서는 他意的인 이긴 하지만 意識이 이미 內在되어 있는 狀況으로 볼 수 있고, 네 번째 外出에서는 <아내>에게만 향했던 意識이 폭넓게-制限的인 空間에서 擴大된 空間으로-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아내에 의해 사육당하던 관계에서 남편의 地位와 自我를 回復하고 있다. 마지막의 脫出은 완전한 自意的이고 意志的인 것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外出의 經驗이 많아 질수록 自意識은 向上되어 지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序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暗示的으로 나타난 파라독스(paradox)적인 意識이 끝에 와서 분명한 意識 흐름의 過程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날개>의 意識 흐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韓國 近代作家中 李箱만큼 現實에서 疎外된 人間 內面の 리얼리티를 깊이 있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가는 없었다.

고전문학 이해의 한 관점

韓國의 古典文學은 가장 情이 든 우리의 文學이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現實은 그렇질 못했다. 어디 따로 마련된 櫥이나 櫃 속에 각별하게 가두어진 骨董品 같은 느낌이 강했었다. 中學校나 高等學校의 國語教科書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잠시 눈에 띄었을 뿐, 學校만 마치면 영영 잊어 버려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韓國의 古典文學은 教科書에 잠겨 있는 文學이거나 그저 試驗用的 文學이거나 하기 고작이었다. 흔히, 古典은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것에 反比例하여 읽혀지지 않는 作品이라고 한다. 이 해학적인 명제가 用케도 들어 맞는 것이 이 땅의 古典文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古典文學과 現代의 讀者와의 乖離는 우리 文化의 향방을 주도했던 開化初期의 일부 啓蒙主義者들에게 영향입은 바 크다. 이들은 전래적인 우리 文學遺產의 拒否 및 傳統脈絡의 斷絶作業에서부터 그들의 이른바 新文學運動이라는 歷史的 巨步를 내딛고 있다. 예컨대 春園은 우리나라가 李朝 5백년 동안에 <우리 것>이라 할 만한 哲學이나 宗教나 文學이나 藝術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정신적 불모성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러한 不毛의 風土에 새로 삼질을 하고 씨를 뿌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새 시대의 젊은 知性들은 <傳統을 敝履과 같이 집어던지고> <父母도 先祖도 없이 天上으로 降臨한 新種族으로 自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春園의 경우 우리 文學史上의 近代化作業은 日帝侵奪 이후 주로 日本이라는 濾過器를 거쳐나온 西歐文學의 移植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春園을 포함한 초기 啓蒙主義者들은 우리 文學史에 自體發展의 계기나 전체 조건을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 감이 없지 않다. 그들은 異民族에 의하여 他律적으로 조작된 時勢에 영합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民族 또는 民族史에 대한 愛情의 표시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우리 古典作品은 으레것 類型的이요, 千篇一律의이요, 非個性的이었고, 그리하여 封建의 儒敎社會의 敎理를 선양하는 데 공헌하였을 뿐, 人間의 個我的인 葛藤이나 人

間의 運命 그 자체를 진지하게 추구해 가려는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文學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古典作品이라면 천원일률같이 人間不在의 文學이었고, 도그마가 인간에 선행하는 人間束縛의 문학이었고, 支配階層이 그들의 支配體系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한 功利主義의 祭物일 뿐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文學觀·時代觀이 이래의 植民地의 文學內容 및 文學史觀의 殼皮形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근래에 이르도록 古典文學을 대하는 일반적 태도는 마치 博物館에 진열된 鳥獸의 剝製品을 덩덩히 바라보는 그 냉담한 시선과 방불했다. 古典文學과 現代文學의 斷絶, 그것은 剝製品과 살아 있는 鳥獸 사이의 距離보다 더 먼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문학은 民族文學으로서 存在하며 그것은 民族의 存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實體이다. 따라서 韓國文學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 개념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되어야 할 것임은 새삼 물을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하여 古典文學과 現代文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커다란 굴절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소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 이러한 시각의 굴절이 깊은 理論的 기반 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릇된 方向性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보자.

西洋의 경우 구체적인 小說의 秩序를 意識하고 小說이 씌어진 것은 16·7C로, 실제의 歷史란 겨우 數世紀에 지나지 않는다. 詩歌나 演劇처럼 그리스 이래의 확고한 모델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古典의인 詩學이 확립될 수 없었던 文學의 장르이다. 小說은 당초 「이야기」「재담」「덕담」「우스개 얘기」「옛날 얘기」라든가, 대수롭지 않은 공상적인 유희,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fiction」등 가장 초보적인 「문학적 요청」에 호응하는 장르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규범적인 미학과 고전적인 모델이 없다는 「小說的」인 사실은 스스로 고유한 방법과 습관에 반발함으로써 부단히 자기 자신을 창조해왔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즉 小說은 일정한 文學形式, 일정한 장르이기를 바라지 않음으로써 存在해 왔다. A. Thibaudet가 말했듯이 바로 小說 自身에 대하여 「아니오(Non)」를 말하는 이 文學 장르는 모든 時代와 사회에서 부단히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모색하면서 偶像化된 여러 가지 定型을 그때 그때 깨뜨려 버림으로써 자기를 갱신하였다. 18世紀와 19世紀에 걸쳐서 「眞實한 것」과 「現實의인 것」에 대한 西歐社會의 열광적 신앙은 「現實」과 그의 轉寫 및 충실한 描寫를

文學에서 偶像化해왔다. 오늘날 小說의 관습적인 테크닉으로 되어있는 배경묘사, 인물소개, 플롯, 동작, 인물간의 갈등, 심리분석……등은 바로 사실주의에서 확립된 것이다. 사실주의적인 表現形式은 당초 부르조아 사회가 정보제공, 자료수집이라는 요구를 小說에 負荷함으로써 이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주의적 表現形式도 小說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거부 대상에서 例外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묘사, 설명, 보도, 자료제공이라는 목표 대신 전혀 다른 의도 아래 완만하고 둔중한 다큐멘타리적인 사회관찰, 지나치게 진지한 심리분석, 출처리 거부, 융통성 없는 묘사, 주인공 배제 등, 온갖 19세기적 遺産을 거절하고 새로운 自己更新의 시도가 소설에서 있어 왔다. 小說에 있어서 습관적 견해를 파괴하는 일은 어느 時代라고 例外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小說」은 19世紀末 日本을 통해서 傳達된 西歐의 충격으로 重大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즉 19世紀末에 우리가 가진 小說史의 오류는 바로 西歐 文學이 18世紀 以後 종래의 文學에 「아니오」를 부르짖고, 신흥 부르조아 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고 나온 사실주의 小說 以後 어느 사이에 딱딱하게 設定해 놓은 하나의 도그마에 자신의 소설 傳統을 무비판적으로 내맡겨 버린 것이다. 自身の 必要에 앞서 외부의 간섭에 依하여 전면적인 拒否의 자세에서 자기 小說에 맹목적인 「아니오」를 발했다. 당연히 「아니오」는 냉정하고도 타당한 비판을 그 自體 안에 내포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순전히 외부의 충격에 의한, 自己 批判이 결여된 「아니오」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이때의 「아니오」는 小說에 관한 일체의 전통에 대한 절대적, 맹목적 부정이요, 그것이 마치 최종적인 부정인 듯이 「아니오」를 발했다. 전면적 부정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傳統의 小說의 모든 의도와 표현방법조차 위에서 말한, 소설의 부단한 自己更新力의 하나의 實現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편견은 우리 小說史 展開에 있어 자유로운 視野를 가로막고, 수백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小說 특히 갑오경장 以前의 小說을 小說의 規則에서 벗어난, 「非小說的인 小說」내지 「變種의 小說」로 규정하여 천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전의 小說이 하나의 변종이었다면 경장 이후에 나타난 所謂 「낭만주의 소설」「리얼리즘 소설」「本格소설」「탐미소설」「심리소설」「상징소설」……등도 각각 小說의 하나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9世紀 小說의 습관적 기준이 우리 傳統의 小說의 평가에 적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

며 따라서 우리 小說史의 正當한 展開를 위하여서는 19世紀 西歐 小說이 마련한 教條에서 벗어나야만 가장 자유로운 小說의 現像을 볼 수 있을 것이다. 小說은 샤르트르式으로 말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주된」 문학형식이기 때문이다.

위의 小說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 文化史가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各時代와 時代, 社會와 社會間의 同質性 또는 異質性을 檢査하고 그 속에서 다시 文明史的 脈絡을 짚어가는 작업은 결코 무리하거나 부당한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엄연히 有來의 傳統, 有來의 文學을 <敝履와 같이 棄어던지고> <天上에서 降臨한 新種族으로 自處>했던 春園 以來의 文學史家들 —우리의 古典文學에 對해 하나의 道格마를 設定하고 그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던 —에게서 쉽사리 해소할 수 없는 抵抗感을 느끼게 된다. 이제 春園 以後의 誤導되었던 古典觀, 文學史觀에 對한 원천적인 재평가에서부터 우리의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時代的 命題인지도 모른다.

전통극의 창조적 계승으로서의 마당극 이해

70년대의 탈춤의 부흥은 국수적 전통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민중적 전통성에 기초한 삶의 한가지 양식으로 ‘마당극’을 창출했다. ‘마당극’은 70년대 한국 사회의 제반현상을 반영하는 문화적 움직임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어 오늘날 까지 그 창조적 생명력을 더해 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용어해설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념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연극이 어떻게 존재해야 마땅한가를 되새겨 보는 자세에서 비롯되어 진정한 연극정신은 과연 어떠한가 되는가를 철저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예술이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마당극은 ‘마당에서 벌이는 극’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당’이라는 말에는 ‘공동성’, ‘집단성’, ‘현장성’, ‘생활성’이 내재되어 있어 마당은 즉 현실의 일부이며 생활의 연장인 장소이자 상황을 이르게 된다.

마당이 단순히 장소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고 관중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일반 무대극에서는 관중과 무대가 확연히 구분되지만 마당극에서는 관중이 연극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마당극에 대한 개념설정은 훨씬 진전되어, 마당이란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상황개념으로서 삶의 토대이자 그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생성의 토대이며, 아울러 공동 집회의 장소가 된다.

민속극과 현대극의 만남의 자리를 ‘마당’으로 설정하면서 전개된 마당극은 민속극의 정신적 배경인 공동체의식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면서 우리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역사의식과 전통의 알맹이를 찾아내려는 민중적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 전통 민속극의 개인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공동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전통극의 창조적 계승으로서의 오늘날의 연극은 현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주요모순과 갈등을

전형적 패턴으로 잡아내고, 그 해결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서 공동체적 관심의 표적을 겨냥하고 그 표적을 적중시키는 작업이어야 한다.

마당극의 무대공간이 주로 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스런 만남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자연스런 만남은 민중생활의 연장으로서의 연회라고 하는 민속극의 속성과도 일치하거나와 수학적 원리에서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 연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원이란 가장 짧은 둘레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형태이며, 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원은 각자의 입장을 평등하게 해주며 전면적인 관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마당극에서는 놀이판과 관중석이 서로 통하고 있으며 더구나 관중의 반응과 개입이 적극성을 띠에 따라 무대의 형태는 고정된 형태로 있지 않고 점차로 유동한다. 특히 공연장소에서의 관중의 직접 개입은 마당극을 해 나가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며, 마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인 것이다.

관중이 가장 자연스럽게 모였을 때 저절로 원형이 된다는 것은 평평한 곳에서 적용되는 일차적 원리로 이것이 생활현장에서 펼쳐진 마당이라면 반드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공연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거기다 관중의 반응과 개입에 의해 순간적으로 유동하는 공간까지 염두에 둔다면, 마당의 움직임은 아메바의 그것과 흡사한 것이 된다.

민속연회에서 일반적으로 추출되는 여러가지 요소중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는 민중적 생활표현의 예술적 원천인 '신명'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신명을 불러 일으키는 여러 계기의 내재적 동인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바 그것은 바로 '놀이정신'이다. 현재의 마당극에서도 이러한 놀이정신은 연회를 성립시키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본다.

한편 마당이란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상황개념으로서의 삶의 토대이자 그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자아 생성의 토대이며, 아울러 공동집회의 장소로서 삶의 생산성을 드높이는 대결을 거쳐 다시금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대립자와의 화해 및 친교까지 가능케 하는 개방적 포용성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마당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두 정신이 바로 마당극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조이다.

이러한 놀이정신과 마당정신을 결합한 바탕 위에야 마당극은 비로소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 마당극은 '상황적 진실성' '집단적 신명성' '현장적 운동성'

‘민중적 전형성’의 네 가지 본질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은 서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서로 뒤엉켜 있어 결국 하나의 덩어리의 여러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민속극은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기반으로 싹이터서 민중들의 체험의식을 예술적으로 집약하여 그들의 진보지향에 따라 전승되어 오는 동안에 하나의 연극양식으로 정립되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연극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 간주되며, 아울러 민속극은 민간전승의 연극으로 그 시대 사회 여건에 대한 민중의 예술의지에 따라 항시 변화 가능성과 동태적인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민속극을 오늘날 마당극 양식처럼 주체적인 사회의식을 가지고 독창성있게 표현하여 우리의 예술의지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